

아프리카 분쟁과 난민의 역할

인도적 위기와 안보적 위협으로서의 난민위기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6년 12월

목차

I. 서론

II. 탈 냉전기 아프리카 분쟁의 추이와 특성

III. 인도적 위기 및 안보적 위협으로서의 아프리카 난민문제

1. 인도적 위기로서의 난민문제
2. 안보적 위협으로서의 난민문제

IV. 사례연구: 아프리카 분쟁과 난민의 역학

1. 제 1, 2차 라이베리아 내전과 난민문제
2. 제 1, 2차 수단 내전, 다르푸르 사태 및 남수단 내전과 난민문제
3. 르완다의 내전과 대량학살 및 후투난민
4. 제 1, 2차 콩고내전과 난민문제

V. 결론

참고문헌

- [표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 근현대 분쟁/전쟁 및 인도적 위기
[표 2] 아프리카 10대 난민배출국, 2015년
[표 3] 라이베리아, 수단,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분쟁 및 난민 개요
[그림 1] 분쟁 곡선 (The Conflict Curve)

I. 서론

2015년 9월 시리아 난민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기주의로 냉담하기만 하던 국제사회가 세 살배기 난민 아ylan 쿠르디의 죽음을 계기로 난민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듯하였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정여론이 높아졌고,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적극적인 난민 수용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시리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북아프리카로부터 몰려드는 난민들을 자국 내 사회적, 정치적 위협으로 판단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다시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forcibly displaced people)의 수는 2015년 말 기준 6,531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그 전 해의 5,95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이고 5년 전과 비교할 때 5배나 증가한 규모이다. 이들 중 2,130만 명만이 ‘공식협약난민’으로 기록되고 있다.¹⁾ 이렇듯 난민을 포함한 강제이주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시리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예멘, 코트디부아르, 남수단 등에서 내전이나 인도적 위기상황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데에 기인한다.

유럽난민사태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떠오르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난민들은 비슷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인접국들에 체류하고 있다. 즉 전 세계 난민 80% 이상은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²⁾ 난민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난민 발생국에 대한 정치적 해결과 더불어 이들 인접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안정만을 추구하여 국경통제에 주력한다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더 큰 부정적 여파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려할 것은 난민문제를 동정심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쿠르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에서 보듯이 지속가능한 해결책 모색이 힘들다는 점이다. 최근 유럽난민문제는 크게 늘어난 난민들로 인해 민족주의 감정이 커지고 유럽연합(EU) 내 국가 간 책임전가(blame game)식 ‘난민 떠넘기기’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현 사태가 정치외교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난민위기가 점점 확산된다면 기존의 EU 통

1)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5. “Figures at a Glance,” *Global Trends 2015 Statistical Yearbooks* (Geneva: UNHCR).

2) United Nations Regional Information Center for Western Europe (UNRIC). 2016. “New Report: Developing Countries Host 80% of Refugees,” December 8, <http://www.unric.org/en/world-refugee-day/26978-new-report-developing-countries-host-80-of-refugees->.

합의 성과와 의미자체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난민들은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무기력한 피해자로서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불안정 및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안보위협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학문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난민수용을 테러위협에 자국을 노출시키거나 다른 위협을 야기하는 원인이라 하여 거부하는 정부들이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난민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정치적,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시각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난민문제를 인도주의적 시각뿐 아니라 현실정치적인 안보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요지이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난민이 단순히 분쟁의 결과라는 일방통행식 사고(one way thinking)에서 벗어나 난민도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던 분쟁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쌍방향 분석을 지향한다. 인구 절반 이상이 난민이나 강제이주자로 전락한 시리아 사태는 오늘날 가장 큰 인도적 위기 상황 중 하나이지만, 본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폭력분쟁과 인도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이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분쟁과 난민 문제의 특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식민통치하에 시달렸던 아프리카는 독립 후 수십 년 동안 내전이나 인접국의 전쟁 등으로 인해 난민문제에 시달려왔다. 대규모의 난민유출이나 유입이 문제되기도 하고 급작스런 이동이나 장기간 체류로 인해 유입국이나 지역의 경제, 자원, 환경, 사회 등 많은 영역에 부담을 주거나 갈등적 소지를 제공하여 사회갈등이나 정치인종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난민이동은 자칫 난민배출국과 유입국 간 외교적 충돌이나 물리적 충돌을 불러오기도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혹은 특이하게 나타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쟁과 강제이주, 난민문제의 역학 및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본 연구는 인도적 위기에 처한 피해자로서의 난민이 어떠한 상황에서 왜 한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안보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우선, 난민은 분쟁의 피해자라는 대 전제하에 라이베리아, 수단, 남수단의 경우 치열한 분쟁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난민들이 어떠한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과 대량학살 등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조명한 후, 국경을

3) 이 주장은 본 연구자의 다른 연구의 주장과도 같다. 2016.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한국과 국제정치」, 제 32권 제 1호, 2016년 봄

넘나드는 난민들이 의도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정착국에 어떠한 정치적, 생태적, 안보적 위협이 되고 출신국과 유입국 간 분쟁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르완다와 콩고난민들도 인도적 보호대상임에 틀림없으나 이에 더하여 어떠한 안보위협이 되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듯 아프리카의 무력분쟁 형태와 인도적 위기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난민문제를 피해자로서의 난민 개개인이나 그룹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난민배출국, 유입국 및 전반적인 지역정세를 고려한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탈 냉전기 아프리카 내전의 추이와 특성

탈 냉전기 무력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국가 내 전쟁은 많은 경우 제 3세계 다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인종분쟁(ethnopolitical conflict)이나 소수민족의 독립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구상에 3천여 개를 웃도는 민족단위의 그룹이 존재하는 반면, 국제사회에서 국가(state)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는 200개 정도라는 점과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유엔의 공식 회원국은 이보다 적은 193개로, 2011년 193번째 회원국이 된 남수단의 경우 오랜 기간 수단과의 분리 독립 전쟁 이후 주권국가로 정식 출범하였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분쟁지인 서부사하라를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이라는 망명정권을 세워 모로코로부터 독립된 영유권 및 주권을 획득하려고 투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오랜 분쟁상태인 팔레스타인도 자치정부가 있으나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듯 정치적 실체를 인정받은 국가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속의 일원으로 소속된 인종그룹들의 수가 너무 많고, 이들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나 특성이 이질적이라 하나의 국가 속에 엮이기가 힘들다. 더욱이 역사적 반목관계나 현재 집권세력이나 기득권 그룹의 정치, 경제, 사회적 차별 때문에 다민족 국가 내 인종/민족그룹들 간 대립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혹은 과거에 자치권이나 기득권을 누렸던 그룹들이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 이들 그룹들이 중앙정부나 엘리트세력에 반발하여 조직적인 정치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시위, 폭동, 게릴라 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무폭력 시위로 시작되었더라도 집권세력이 강압적으로 대응하면 시위가 폭력행위나 내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설사 중

양정부가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정책을 펴더라도 과거 자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무력투쟁이나 게릴라전을 불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인종분쟁(ethnopolitical conflict)은 서로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고 타협하기 힘들어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⁴⁾

2015년 7월 발표된 스웨덴 옉살라대학교 분쟁데이터 프로그램(UCDP) 집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25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무력분쟁은 총 28개국 40건으로 1999년 이래 최다로 기록되었다. 이 중 국가간 전쟁은 50명가량의 사망자를 낸 인도-파키스탄 간 분쟁 단 한 건이었고 나머지 39건은 모두 내전이였다. 무력분쟁이 발생한 국가들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 3개국, 중동 6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10개국, 미주 2개국이고, 발생한 분쟁건수로 보면 유럽 6건, 중동 6건, 아시아 13건, 아프리카 12건, 미주 2건이다.⁵⁾ 최근 내전이 재발된 부룬디, 니제르, 차드가 추가 분쟁지역으로 기록된다면,⁶⁾ 아프리카는 무력분쟁이 가장 많이 관찰되는 지역이다.

또한 UCDP 조사에 따르면 39건 중 총 13건(33%)의 내전이 국제화(internationalized) 경향을 띠었는데, 국가 내부의 정치인종분쟁이나 소수민족의 해방전쟁 등에 있어 인접국가나 역사적으로 유관한 국가들, 혹은 강대국이 관여하는 것은 종종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그 추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2014년 관찰된 13건 중 5건(말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였다.⁷⁾

한편, 분쟁국의 평화유지 및 군축, 중재 등을 위해 1948년 처음 시작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은 2016년 8월 기준 16개 지역에서 임무가 수행 중에 있다. 이 중 서하라라지역(MINURSO), 중앙아프리카공화국(MINUSCA), 말리(MINUSMA), 콩고민주공화국(MONUSCO), 수단 다르푸르(UNAMID), 수단 아비에이(UNISFA), 남수단(UNMISS), 코트디부아르(UNOCI), 라이베리아(UNMIL) 등 9개 임무가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⁸⁾ 전후 지속적인 평화구축활동(PBO)을 위해 2005년 말 세워진 평화구축위원회(PBC)가 2016년 8월 기준 다루고 있는 6건의 의제는 모두 아프리카

4) Ted R. Gurr. 1993. "Why Minorities Rebel: A Global Analysis of Communal Mobilization and Conflict Since 1945,"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4. No. 2, April.

5) Themnér Pettersson and Peter Wallensteen, 2015. "Armed Conflict, 1946-2014",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2, No. 4, July.

6) Peter Dörrie, 2016. "The Wars Ravaging Africa in 2016,"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22.

7) 상동.

8)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016. "Peacekeeping Fact Sheet," August 31, <http://www.un.org/en/peacekeeping/resources/statistics/factsheet.shtml>.

국가들(부룬디, 시에리레오,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다.⁹⁾ 분쟁 재발방지를 역점으로 유엔사무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기금으로 2006년 발족된 평화구축기금(PBF)은 PKO 기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2016년 8월 기준 25개국 120개 프로젝트를 지원을 포함 총 33개 국가를 지원해 왔다. 이들 중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임무종료),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우간다 등 총 17개국에 달한다.¹⁰⁾ 이렇듯 PKO 및 PBO의 사례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은 것은 이 지역이 정치적 불안정과 국가 취약성으로 인해 분쟁발발이나 재발이 빈번하여 국제평화활동이 가장 절실한 지역임을 반증한다.

이렇듯 아프리카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부정적인 ‘식민지 산물’(colonial legacy)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고유한 지형, 인종,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서방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및 힘의 역학에 따라 자위적으로 국경을 나누었고, 그 결과 ‘생태-인종적 불일치’(eco-ethnic mismatch) 현상이 벌어져 인종간, 부족 간 갈등과 충돌이 심해진 것이다.¹¹⁾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레)의 남부 키부에는 투치계인 바나물랭계족이 18세기부터 살고 있었는데, 1910년 서구 식민세력은 임의로 콩고와 르완다 국경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콩고에 편입되었고 후투족을 지지하는 입장인 중앙정부에 의해 차별 및 강압에 시달렸고, 결국 2차례의 치열한 내전을 치르게 되었다.¹²⁾

아프리카 분쟁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자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부족이나 무장그룹, 그리고 외부세력까지 관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 점인데, 북부 아랍계와 남부 흑인들 간 벌어졌던 수단 내전은 1972년 어렵게 휴전이 되나 석유를 둘러싼 갈등으로 1983년 제2차 내전이 발발하였고,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로 알려진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채굴을 둘러싼 내전도 전형적인 자원분쟁이다.

더욱이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 양 진영이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으로

9)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Commission, 2016. “Countries Currently on the PBC Agenda,” August 31, <http://www.un.org/en/peacebuilding/>.

10)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2016. “Where We Fund,” August 31. <http://www.unpbf.org/countries/>.

11) Shin-wha Lee. 1997, “Not a One-time Event: Environmental Change, Ethnic Rivalry, and Violent Conflict in the Third World,” *The Journal of Environment Development*, Vol 6, No. 4. December.

12) Peace Direct. 2009.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onflict Profile,” *Insight on Conflict*, August, <https://www.insightonconflict.org/conflicts/dr-congo/conflict-profile/>.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며 필요에 따라 정부군이나 반군을 돕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강대국들의 아프리카 정책은 역내 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친 서방 노선을 견지하여 상대적 안정을 유지한 반면, 앙골라, 기니비사우, 모잠비크와 같이 포르투갈 식민지 국가들은 친서방과 친소로 양분되어 치열한 내전을 벌였다. 혼 오브 아프리카와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 역시 냉전기 미소 대립이 양산하거나 증폭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앙골라 내전은 소련과 쿠바의 후원하의 정부군(MPLA)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군(UNITA)간 35년 넘게 내전을 벌였다. 소련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전략적 효용가치가 없어진 앙골라를 떠나면서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오래지 않아 집권경쟁으로 이후 10년 이상 분쟁이 이어졌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냉전기 미국의 지원 하 1970년 집권한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이어가다가 1990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권력기반이 약화되면서 반군의 도전을 받게 되어 내전이 발발하게 된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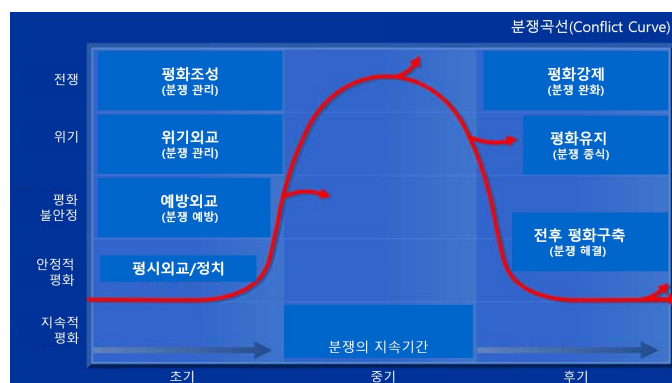
냉전종식 후 아프리카에서도 민주주의체제를 수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그룹들이 저마다 유리한 정치노선과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충돌하게 되어,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내전이 급증하게 되었다. 다소 고무적인 것은 탈 냉전기 이후 급증하였던 분쟁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절대 수치 면에서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아프리카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아프리카도 다소 ‘평화로워졌다’는 뜻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 내 무력분쟁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모잠비크, 나미비아,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내전을 끝내고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찾고 있다. UCDP 연구를 보면, 2013년 대비 2014년 말 무력분쟁이 종료된 건이 7개인데, 이들 중 3건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모잠비크였다. 또한 같은 기간 10개의 평화협정이 만들어졌는데, 남수단(4개), 수단(1개), 모잠비크(1개) 등 6개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루어졌다.¹³⁾

물론 이러한 협정이 얼마나 지속가능한가가 중요한데,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분쟁, 특히 내전은 평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유지 및 전후 평화구축단계를 통해 분쟁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깨지기 쉬운’ 평화(fragile peace), 즉 분쟁재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¹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프리카

13) Petterson and Wallensteen, 2015. 상동.

에 잔존하는 분쟁은 이 지역 전체 54개 국가 중 특정 국가들에 집중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대호수 지역(Great Lakes Region)이라 불리는 중앙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나이지리아,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 지역은 분쟁교착지역이나 평화협정 파기로 다시 분쟁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¹⁵⁾

<그림 1> 분쟁 곡선 (The Conflict Curve)



출처: Michael Lund, 2004. “Curve of Conflict, ‘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 http://online.usip.org/analysis/2_6_2.php.

더욱이 이들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내전은 대량난민 양산과 인접국에 사는 혈족그룹(kindred groups)의 분쟁연루, 인접국이나 강대국들의 개입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나 역내 지역전으로 확산되기도 한다.¹⁶⁾ 30년째 지속되고 있는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한 무정부상태, 1994년 르완다 대량학살과 내전,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단 다르푸르 사태에서 보이는 인종학살이나 중앙정부의 강경진압, 2005년 말 시작된 차드 내전에서 반란군이 인접 수단 정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역으로 수단 반군은 차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의 상황에서 관찰되듯이, 내전은 장기화, 국제화되어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양상이 되기 일쑤이다. 특히 강대국이나 유관 국가들이 내전으로 대치중인 세력들 중 어느 한 쪽을 지원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2014-15년 보코하람과 나이지리아 정부 간 무력분쟁도 그 자체가 심각했을 뿐 아니라 니제르, 차드, 카메룬 등 인접국에까지 번져나간 전형적

14) 이신화, 이성현. 2015. “내전의 재발방지와 유엔의 안보역할 -아프리카 전후(戰後) 평화구축활동의 성과격차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Vol. 23, No. 3.
 15) Marianne Ducasse-Rogier, 2009. “Resolving Intractable Conflicts in Africa: A Case Study of Sierra Leone”,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ingendael*, Hague.
 16) Gurr. 상동.

인 사례이다. 2016년 들어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다소 줄어들어 희망적 시각을 보이는 분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지리아 정부나 인접국,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반란 (insurgency)에 대응할 장기적인 전략마련에 여전히 부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미국이 테러리즘을 퇴치하는 일환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보코하람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적일지도 미지수이고 ‘서방 개입’에 대한 반감으로 역효과를 낼 우려도 있다.¹⁷⁾

‘순수한’ 내전 중재나 평화활동을 위해 파견되는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복잡한 내전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는 극히 힘들다. 1989-97년 진행된 제 1차 라이베리아 내전의 경우 60만 명이 죽고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와 유엔이 기입하였으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1999년 다시 제 2차 내전이 발생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중재역할이나 평화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여러 사례들 중 하나이다. 더욱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등에 파견된 유엔평화유지군들이 10대 소녀들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나 성폭행 등을 벌여 평화유지활동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¹⁸⁾

이러한 개입은 많은 경우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폭력사태나 인도적 위기상황이 동일한 수준이나 더 심각한 경우에도 개입을 꺼려하는 경우(예: 르완다)가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입(예: 코소보)이나 논란이 되는 개입(예: 소말리아) 등으로 인해 국제개입의 공정성이나 타당성이 문제가 되어왔다. 1999년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사무총장은 보다 효과적이고 정당한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2001년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는 <보호책임>(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고서를 내면서, 주권은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임을 강조하는 국민보호책임을 강조하였다. 즉 자국민 보호의 우선적 책임은 그 해당정부에 있지만, 그 정부가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지켜줄 책무가 있다는 개념으로 R2P로 불린다.¹⁹⁾ ICISS의 내전, 국가실패, 천재지변에

17) “Nigeria, France forces to cooperate closer in fight against Boko Haram,” *The Japan Times*, April 29, 2016; “US Pledges \$45 million for African Nations Fighting Boko Haram,” *Africa France* 24, September 24, 2015, <http://www.france24.com/en/20150924-usa-45-million-support-countries-fighting-boko-haram>.

18) Human Right Watch. 2016. “UN: Stop Sexual Abuse by Peacekeepers,” March 4. <https://www.hrw.org/news/2016/03/04/un-stop-sexual-abuse-peacekeepers>.

19)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2011. *The*

대한 정부실책이나 무능에 대한 보호 등을 포괄하는 반면, 2005년 유엔총회에서 191개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R2P는 대량학살(genocide),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전쟁범죄(war crime),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만을 R2P 범죄로 좁혀 규정하고 있다.²⁰⁾

아난 총장에 이어 반기문 현 유엔사무총장도 지속적으로 R2P 원칙을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²¹⁾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으로 재직하다 차기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대표 역시 민간인 보호를 역설하는 R2P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R2P의 첫 사례가 된 2011년 리비아에의 개입이 논란거리가 되고, 리비아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고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에는 적용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R2P가 인도적 개입과 유사한 비판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국제사회의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표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 근현대 분쟁/전쟁 및 인도적 위기]

국가명	분쟁/전쟁 기간	분쟁/전쟁 주요 이슈	내전/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난민 수
서아프리카 (West Africa)			
Burkina Faso (버키나파소)	1974년 11-12월	Upper Volta(버키나파소) vs. 말리	n.a.
	1985년 12월	버키나파소 vs. 말리	141명 사망, 257명 사상
Cote d'Ivoire (코트디부아)	2002년 9월-2007년 3월	1차 내전 (정부관할 기독교남부 vs 이슬람북부 반군)	n.a.
	2010년 11월 -2011년 4월	2차 내전 (평화협상 결렬) 대통령 후보인 그바그보의 지지 세력 vs. 대통령 당선자인 와타라의 지지세력(RDR)	3,000명 사망
Guinea-Bissau (기니비사우)	1963년 1월-1974년 9월	독립전쟁 (포르투갈 식민지 해방) 반 포르투갈 독립운동단체인 기	5,000명 사망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for ICISS).

2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5. A/RES/60/1,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World Summit Outcome*, October 24, 2005, http://www.un.org/summit2005/presskit/fact_sheet.pdf.

2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9.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677, January 12.

		니카보베르데독립아프리카당 (PAIGC) vs. 포르투갈 정권	
	1998년 6월-1999년 5월	내전 (쿠테타로 촉발) 前 참모총장 마네에 충성하는 군대 vs. 참모총장 시브라에 충성하는 군대	655명 이상 사망, 350,000명 난민
Liberia (라이베리아)	1989년 12월-1997년 8월	1차 내전 (쿠테타로 촉발) 대통령 도의 라이베리아 국군 (AFL) vs. 前 총리 테일러의 구국동맹(NPFL) vs. 친미파 프린스 존슨의 라이베리아 독립구국전선(INPFL)	400,000-620,000명 사망
	1999년 4월-2003년 8월	2차 내전 (평화협상결렬) 망명그룹들의 연합된 조직인 화해와 민주주의를 위한 라이베리아 연합(LURD) vs. 테일러 정권 vs. 반군세력인 라이베리아 민주운동(MODEL)	150,000-300,000명 사망
Mali (말리)	1985년 12월	버키나파소 vs. 말리 (국가 간 전쟁)	38명 사망, 57명 사상
	1990년-1995년 5월	내전 (정부군 vs. 북부 투아레그 반군)	n.a.
	2012년 1월-2015년 2월	북부 말리 내전 아마두 하야 사노고 대위 주도의 민주주의와 정부복원 국가위원회 (CNRDR) vs. 말리 정권	374,000명 난민 (230,000명 국내유민)
Mauritania (모리타니아)	1970년-현재	모로코로부터 서사하라 분리전쟁 (서사하라, 모로코, 모리타니아, 알제리에서 분쟁 중)	n.a.
Nigeria (나이지리아)	1967년 7월-1970년 1월	나이지리아로부터 비아프라 (Biafra) 분리전쟁 동부주민 이보족(族) vs. 북부주민 하우스족(族)	45,000-100,000명 사망(전투병) 2,000,000-4,500,000명 강제이주민 (500,000-3,000,000명 난민 포함)
	1999년 7월-현재	보코하람 반란으로 시작	n.a.
Sierra Leon (시에라리온)	1982년	응도그보요소이(Ndogboyosoi) 전쟁 (정치분쟁) 반정부세력인 혁명연합전선 (RUF) vs. 모모 정부	n.a.
	1991년 3월-2002년 1월	내전 (반정부 반란으로 시작, 자원분쟁 등) 혁명연합전선(RUF) 반군 vs. 카바 정부	50,000-300,000명 사망, 2,500,000명 강제이주민
West Sahara (서사하라)	1970년-현재	모로코로부터 서사하라 분리전쟁 (서사하라, 모로코, 모리타니아, 알제리에서 분쟁 중)	n.a.

혼 오브 아프리카 (Horn of Africa)			
Djibouti (지부티)	1991년 11월 - 1994년 12월	소수민족 아파(Afar) 내란으로 촉발 아파르족 반군단체인 통일민주회복전선(FRUD) vs. 이싸족 정부군(FNC)	n.a.
	2008년 6월 (10-13일)	에리트레아-지부티 국경분쟁	n.a.
Eritrea (에리트레아)	1961년 9월 - 1991년 5월	독립전쟁 (이티오피아로부터 분리) 반정부세력인 에리트레아인민해방전선(EPLF) vs. 이티오피아 셀라시에 독재정권	60,000여명 사망(전투병), 90,000명 사망(민간인)
	1972년 2월 - 1981년 3월	내전 (독립을 둘러싼 정치분쟁) 반정부세력인 에리트레아인민해방전선(EPLF) vs. 멩기스투 사회주의 정권	n.a.
	1998년 5월 - 2000년 5월	에리트레아-이티오피아 국경분쟁	70,000-100,000명이 양국에서 사망(International Crisis Group 추정)
	2008년 6월 (10-13일)	에리트레아-지부티 국경분쟁	
	2010년 1월 (1일)	에리트레아-이티오피아 국경분쟁	
Ethiopia (이티오피아)	1961년 9월 - 1991년 5월	에티오피아의 분리 독립 전쟁 반정부세력인 에리트리아인민해방전선(EPLF) vs. 이티오피아 셀라시에 독재정권	병사 최대 80,000명 사망
	1998년 5월 - 2000년 5월	에리트레아-이티오피아 국경분쟁	70,000-100,000명이 양국에서 사망(International Crisis Group 추정)
	2010년 1월 (1일)	에리트레아-이티오피아 국경분쟁	
Somalia (소말리아)	1977년 7월 - 1978년 3월	오가덴 전쟁(소말리족 내전 및 이티오피아 침입) 소말리아 시야드 바레 정권+이티오피아 내의 반정부 무장세력 vs. 이티오피아 정권	에티오피아: 6,133명 사망, 10, 563명 사상, 3,867명 억류 혹은 실종 소말리아: 1,000명 사망, 500,000명의 난민 발생
	1991년- 현재	무장그룹간 내전, 무정부상황 아이디드파, 마디파, 아토파 vs. 바레 군사정권	300,000-500,000명 이상 사상, 1,100,000명 이상의 난민 발생

Sudan (수단)	1955년 8월 - 1972년 3월	제 1차 내전 혹은 아난야(Anyanya I) 반란, 아랍계 북부인(북부 중앙정부)과 기독교/무교 남부 수단인(반군 SPLA)간 지역자치권 둘러싼 분쟁	500,000여명 사망 (100,000명 전투병, 400,000명 민간인 포함)
	1983년 4월- 2005년 1월	제 2차 내전, 북부 중앙정부와 SPLA 간 유전개발권 등으로 분쟁재발, 남수단에서 시작하여 누바산과 블루나일로 확산	2백만 명 사망(대부분 민간인, 기아와 가뭄 피해자 포함), 남수단인 4백만 명 강제이주
	2003년 2월 - 현재	다르푸르 분쟁, 다르푸르의 비아랍계에 대한 박해 및 인종정소에 반발한 반군(SLA, JEM)과 중앙정부 지원의 잔자위드 민병대의 분쟁	300,000명 사망, 2백 850,000명 - 3백만 명 강제이주
	2005년 12월 - 2010년 1월	수단-차드 전쟁, 수단정부 지원을 받고 수단반군이 차드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차드-수단 국가 간 전쟁으로 비화	880-1,600명 사망
	2011년 1월-현재	수단 내 유목민들 간 갈등이 2011년 남수단에서 치열해짐	3,000명 사망
	2011년 7월-현재	제 3차 내전 혹은 수단 남부 남코도판과 블루나일에서의 수단군(SAf)과 수단반군(SPLM-N) 분쟁, 7월 9일 남수단 독립과 더불어 발발	650-1,500명 사망 500,000명 강제이주자
	2012년 3월- 2012년 9월	수단-남수단 국경분쟁, 석유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둘러싼 무력충돌	n.a.
	2013년 12월 - 현재	남수단 내전* 정치권력을 둘러싼 SPLM 내부 세력 간 분쟁	300,000명 사망 3백만 명 강제이주자 (2백만 명 국내유민, 1백만 명 난민포함)
대호수 지역 (Great Lakes)			
Burundi (부룬디)	1993년 10월 - 2005년 8월	후투족과 투시족 간 내전 (2015년 4월 이후 불안정함 고조)	300,000명 사망
Kenya (케냐)	1963-67년	시프타(Shifita) 전쟁, 북부 소말리족 분리주의자 분쟁 (2008년 이후 정치적 긴장고조)	4,200명 이상 사상
Rwanda (르완다)	1990년 10월 - 1994년 7월	후투족과 투시족 간 내전 (대량학살발생)	170만 명 이상 사망, 200만 명 이상 난민
Tanzania (탄자니아)	1978년 10월 - 1979년 4월	탄자니아-우간다 전쟁 (우간다 쿠데타로 촉발)	1,500여 명 사상자

Uganda (우간다)	1978년 10월 - 1979년 4월	탄자니아-우간다 전쟁 (우간다 쿠데타로 촉발)	500여명 사상자
	1981년 2월 - 1986년 1월	우간다 부시 (Uganda Bush) 반정부 게릴라전 정부군과 LRA간의 갈등	65,000명 사상자(북부), 200,000명 이상 난민
중앙아프리카 (Central Africa)			
Central African Republic (중앙아 프리카공화국)	2004-07년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7,000여명 사상자, 308,000명 이상 난민
	2012년 12월 -현재	정부군과 반군연대의 내전	
Chad (차드)	1965년 11월 - 1979년 11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폭동과 반란으로 촉발한 내전 북부세력인 차드민족해방전선(FROLINAT)+ 리비아 vs. 남부 정부군+프랑스	500명가량 사상자
	1978년 1월 - 1987년 9월	차드-리비아간 간헐적 충돌 및 분쟁	85,000명 사상자
	1979-82년	군부연합정권과 반군의 내전	
	1998년-2002년	북부 아랍 이슬람군과 남부 기독교 내전	수 천 명 난민 (추정)
	2005년 12월 - 2010년 1월	정부군과 반군(수단정부지원)의 내전, 차드반군이 수단정부 지원을 받고 수단반군이 차드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차드-수단 국가 간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함.	n.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콩고민주공 화국)	1996년 10월 - 1997년 5월	제 1차 콩고전쟁 (르완다에 의한 자이레정권 전복,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개명) 모부투 정권+舊 르완다 정부군(후투족) vs. 투치족(바냐물렝계족)의 콩고자이르해방민주세력연합(AF DL) / 모부투 정권+舊 르완다 정부군(후투족) vs. 르완다+부룬디(투치족)	540만 명 이상 사상자 39만 5,000명 난민
	1998년 8월 - 2003년 7월	제 2차 콩고전쟁, 아프리카의 '그레이트 워'(Great War) 혹은 '아프리카 세계전쟁'(아프리카 8개국과 전쟁 카빌라정권(앙골라, 짐바브웨, 나미비아, 수단, 잠비아, 차드) vs. 콩고해방운동(MLC)+우간다/ 카빌라정권 vs. 민주주의를 위한콩고인모임(RCD)+르완다	
	1999년-2003년	이투리(Ituri) 인종분쟁, 내전	

	2004-09년, 2012-13년, 2015년-현재	키부(Kivu) 내전 (정부군과 후투만군)	
Republic of Congo(콩고공화국)	1997년 6월 - 1999년 12월	인종분쟁, 내전 당시 Lissouba정권에 대한 Sassou의 쿠데타	25,000명 사상자, 200,000명 국내유민 6,000명 난민
남부 아프리카 (Southern Africa)			
Angola (앙골라)	1961년 2월 - 1974년 4월	앙골라 독립전쟁 (포르투갈 식민지로부터) 앙고라군 과 포르투갈 군 간의 갈등	5만 3,000명의 사상자
	1975년 11월 - 2002년 4월	독립 후 집권경쟁으로 촉발 MPLA와 UNITA의 갈등	360만 명 이상 사상자 42만 1000명의 난민
Mozambique (모잠비크)	1964년 9월 - 1974년 9월	모잠비크 독립전쟁 (포르투갈 식민지로부터) FRELIMO의 독립	100만 명 이상 사상자 170만 명 난민
	1977년 5월 - 1992년 10월	냉전기 대리전 양상의 내전	
	2013년 4월 - 2014년 9월, 2015년 3 -현재	RENAMO 반군의 반란, 내전 FRELIMO(정부군)과 RENAMO 사이의 갈등	
Namibia (나미비아)	1966년 8월 - 1990년 3월	나미비아 독립전쟁, 국경분쟁 (남서아프리카/나미비아, 앙골라, 잠비아,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됨)	20,000-25,000명 사상자 (민간인 900-1,100명 사망포함)
	1994-99년	정부군과 반군의 캡리비(Caprivi) 분쟁	n.a.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1966년 8월 - 1990년 3월	나미비아 독립전쟁, 국경분쟁 (남서아프리카/나미비아, 앙골라, 잠비아,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됨)	약 25,000명 사상자
Zimbabwe (짐바브웨)	1964년 7월 - 1979년 12월	로데지아 부시(hodesian bush war) 혹은 짐바브웨 독립전쟁 (로데지아, 잠비아, 모잠비크에서 진행됨); 스미스 정권 지배하의 로데지아군 및 무조레와 정권 지휘 하의 짐바브웨 로데지아군 vs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동맹,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동맹	약 2만 명 사상자

표 註: 저자가 유엔 및 국가별 분쟁일지를 통해 정리한 내용임. n.a.는 수치가 불명확하거나 파악하기 힘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을 수단으로 포함하여 분쟁을 정리함.

III. 인도적 위기 및 안보적 위협으로서의 아프리카 난민문제

1. 인도적 위기로서의 아프리카 난민문제

국가 간 전투가 벌어질 경우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직접적 공격타깃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인종분쟁을 비롯한 내전은 전선 없는 전쟁양상을 띠면서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²²⁾ 정치권력이나 자원획득 등을 둘러싸고 한 국가 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집단들끼리 무력분쟁을 벌이는 행위인 내전은 상대측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량학살이나 강간 등을 자행하는 등 민간인을 보복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냉전기 미소대립 속에 악화되어 35년 이상 지속된 앙골라 내전으로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0만 명의 난민으로 전락하였다.²³⁾ 2003년 발생한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의 정치인종분쟁으로 2010년까지 40만 명 이상이 죽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강간당하였으며,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되어 인접국으로 탈출하거나 실항민으로 떠도는 소위 '국내유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s)이 되었다.²⁴⁾ 제2차 콩고 전쟁(1998-2003년)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희생자를 낸 지역분쟁으로 알려졌는데, 5년 동안 4백만 명이 사망하고 고문과 집단강간이 횡행하고, 2,500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²⁵⁾

이렇듯 인종분쟁이나 이와 관련한 인권유린, 정치적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국을 탈출한 난민들 문제가 탈 냉전기 최대 인도적 위기이슈가 되어왔다. 냉전직후 10년간 급증하던 전 세계 난민수가 21세기 들면서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분쟁이 장기화되고 치열해지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아프리카의 경우만 봐도, 남수단,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진행 중인 분쟁이나 위기상황으로 난민이 크게 늘고 있으며, 2016년 들어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부룬디와 예멘에서의 갈등상황으로 난민은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이다.

난민이란, 국제법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22) Mary Caldor, 2013, *New & Old Wars*. 2006. 2nd edi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3) Paul Salopek. 2000. "CEOs of War Bleed Angola," *Chicago Tribune*, April 2.

24) Committee on Conscience, "Alert: Genocide today in the Darfur Region of Sudan,"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February 2005, <<http://www.committeeonconscience.org>>.

25) Anup Shah. 2010.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Global Issues*, August 21,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87/the-democratic-republic-of-congo>.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일컫는다.²⁶⁾ UNHCR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 세계 강제이주자(forcibly displaced people)는 6천 5백 31만 명이고, 이 중 유엔난민법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도 2천 1백 30만 명에 달하여 지구촌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위기에 봉착하였다.²⁷⁾

500만 명가량의 시리아난민과 270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을 포함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세계 전체 난민의 39%가 있지만, 1백 12만 명이상의 소말리아 난민 등이 있는 아프리카에도 29%나 체류하고 있다.²⁸⁾ 2016년 말 기준 난민 최대 배출국은 이들 3개국(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으로 전 세계 난민의 절반 이상에 달하며, 여기에 수단과 남수단으로부터의 강제이주자를 포함시키면 60%가 훌쩍 넘는다.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 등도 난민 배출국 세계 10위안에 들고 있으며, 1980년 이래 난민 배출 20위권 국가 총 50개국 중 수단,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등도 지난 36년 간 20회 이상 20위안에 기록된 국가들이다. 이들 공식협약난민들 중 절반 이상은 18세 미만이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6천여 만 명을 웃도는 세계 전체 강제이주자들의 80%를 차지하고 있다.²⁹⁾

이렇듯 난민이나 강제이주자들을 배출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종족간 갈등, 내전, 정부의 박해나 구조적 폭력, 경제피폐, 인접국가나 외부행위자에 의한 개입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분쟁발발과 재발 방지 및 대응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여전히 분쟁과 정치불안 및 박해가 만연함에 따라 난민을 포함한 강제이주자들의 귀환은 점점 요원한 현실이 되고 있으며, 수용국에서의 난민들의 처지나 지위역시 인도적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다.³⁰⁾

26) 유엔난민기구 (UNHCR), “난민,” <http://www.unhcr.org/kr/unhcr/html/001/001001001002.html>.

27) 이 수치는 UNHCR관할임무(mandates)하의 1천 6백 10만 명과 1949년 설치된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 등록된 5백 2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포함한 수치이다.

28) UNHCR. 2016. “Figures at a Glance,” <http://www.unhcr.org/afr/72-figures-at-a-glance.html>.

29) UNHCR. 2015. “UNHCR: Total Number of Syrian Refugees Exceeds Four Million for First Time,” Press Release, 2015년 7월 9일, <http://www.unhcr.org/news/press/2015/7/559d67d46/unhcr-total-number-syrian-refugees-exceeds-four-million-first-time.html>.

정치적 공식협약난민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강제이주자들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유민, 무국적자들, 비호신청자 등 4천여만 명이 2천여만 명의 협약난민에 대하여 UNHCR의 인도적 지원대상자들(those who are concern to UNHCR)이다. 아프리카 난민의 경우, 생태적 환경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실향민이 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인종적 분쟁으로 인한 난민 수를 넘어서고 있다.³¹⁾

[표 2: 아프리카 10대 난민배출국, 2015년]

국가	난민 배출 수
소말리아	112만 3천명
남수단	77만 8천명
수단	62만 9천명
콩고민주공화국	54만 1천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7만 1천명
에리트레아	41만 1천명
부룬디	29만 3천명
르완다	28만 6천명
나이지리아	16만 8천명
서사하라	11만 7천명

출처: UNHCR, 2015.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5*, <http://www.unhcr.org/statistics/unhcrstats/576408cd7/unhcr-global-trends-2015.html>.

2. 안보적 위협으로서의 난민문제³²⁾

난민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정책적 고민은 분쟁이나 정부박해 등의 피해자들이 무기력하고 무고한 민간인이라는 전제하에 시작된다. 특히 난민을 비롯한 강제이주자들이 크게 늘고, 여성과 어린이들의 피해가 확대되면서 분쟁예방과 초기대응 등을 통해 난민발생의 원인을 제거해야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치적’ 난민들 뿐 아니라 경제문제나 생태적 위기상황에서 비롯되는 강제이주 요인들도 난민발생의 원인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난민은 피해자’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30) UNHCR. 2016. 상동.

31) 최동주. 2003. “아프리카 난민문제에 대한 소고,”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18집.

32) 안보위협으로서의 난민에 관한 이 절의 부분은 본 연구자의 2016,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에서 인용함.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난민사태에 대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난민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고, 프란체스코 교황도 난민은 ‘위험 아닌 위험에 처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³³⁾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반이민 시위나 반인종적 정서 및 난민거부현상 원인으로 자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이나 이주자들이 경제적 부담이 되거나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들 중 테러리스트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난민이 정치적,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다.

실로 난민사태는 분쟁, 국가실패, 박해, 천재지변, 기근과 같은 요소들이 연계되어 나타나지만, 피해자로서의 난민위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위기로 촉발될 수 있는 국내외적 여파를 간과할 수 있다. 사실 아프리카 분쟁과 난민역사를 살펴보면, 유입된 지역 내에 불안요소가 되거나 배출국과 유입국 간 갈등이나 분쟁을 초래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어온 사례를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에서의 난민문제가 연일 지구촌 헤드라인이 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난민들은 인접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난민배출국과 유사하거나 더 불안정한 상황이거나 저개발국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난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분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고, 혹은 정착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난민위기에 대해 분석할 때는, 첫째,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었는가하는 규모, ii) 얼마나 급작스레 난민들이 유입되었는가하는 긴급성, iii) 얼마나 오랫동안 난민들이 유입된 지역에 체류할 것인가라는 기간, 그리고 iv) 난민들이 순수 민간인인가, 정치 망명자인가, 난민을 가장한 호전적 전사인가 하는 유형 등이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³⁴⁾ 유입된 국가나 지역의 수용한계를 크게 넘어서는 대규모의 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나, 예상치 못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단시일에 난민들이 밀려들 경우, 또한 1980년대 중반 UNHCR 차석대표인 윌리엄 스미세가 지적한 바대로, 난민문제는 단순한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입된 난민들이 수 년 혹은 수십 년 떠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수용국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³⁵⁾ 더욱이, 현지주민과 난민이 마찰을 일으키거나, 난민을 위장한 전사들이나

33) “Migrants not dangerous but in Danger,” Pope Francis Tells Children in Vatican Meeting, “ABC News, 2016년 5월 29일,

34) 이신화, 2002. “평화의 새로운 위협: 환경-난민-분쟁의 역학,”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도서출판 풀빛), 12월.

35) William R. Smyer, 1985, “Refugees: A never Ending Story,” *Foreign Affairs*, Fall.

테러리스트들이 수용국 난민촌을 기지로 삼아 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거나 수용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이들 난민전사들을 지원하고 출신국 정부가 보복공격에 나설 경우, 난민사태는 이미 인도적 사안을 넘어선 국가안보나 지역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용국은 난민 유입을 안보문제로 간주하는 소위 난민사태의 ‘안보화’를 추진함으로써 난민들을 거부하거나 배출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구실로 삼곤 한다.³⁶⁾ 특히 난민들이 민간인인지 난민전사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용국의 안보화 정책은 더욱 뚜렷해진다.³⁷⁾

케냐 다다브 난민촌의 소말리아 난민들은 대다수가 거기서 태어나 어른이 되도록 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본국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도 별로 없다. 이들은 케냐 사회의 정식 일원이 되어 살고자 하나 케냐 정부는 자국 소재 알샤바브 테러집단이 이들 난민들과 연계가 있다고 단정짓고 2013년 소말리아 정부와 송환협정을 맺은 후 난민촌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케냐의 시민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케냐 정부는 이들 난민들이 케냐 소재 알샤바브 테러단체를 지원한다고 비난하며 이 난민촌을 폐쇄하고 이들을 강제송환하기 위해 2013년 소말리아정부와 협정을 맺고 난민 캠프를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³⁸⁾ 2016년 11월 케냐정부는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난민촌 폐쇄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 이들 난민들의 운명은 불확실한 상황이다.³⁹⁾ 1980년대 나미비아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SWAPO)의 무장 독립투쟁조직인 남서아프리카해방군(SWANLA)의 경우, 나미비아 난민들이 밀집해 있는 앙골라 난민촌을 거점으로 남아공에 대항한 분리주의 운동을 펼쳤다.⁴⁰⁾ 또한, 후술하였듯이, 1994년 7월 르완다 내전에서 패배한 후투족 구정부군과 민병대는 민간인 난민들 틈에 끼어 자이레로 탈출한 후 본국에 대한 공격을 펴고 유입국 종족갈등과 정치다툼에 영향을 끼쳐 내전을 유발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한편, 주목할 것은 유럽 국가들이 최근 심각해진 자국과 유럽자체 난민위기에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게 됨에 따라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타 지역

36) 송영훈, 2014.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국제정치논총』, 제 54권 1호, 3월.

37) 이신화, 2016, 상동.

38) 송영훈, 2014, 상동.

39) “Kenya Delays Dadaab Refugee Camp Closure by Six Months,” *Aljazeera News*, November 16, 2016. <http://www.aljazeera.com/news/2016/11/kenya-delays-dadaab-refugee-camp-closure-months-161116130647820.html>.

40) Aristide Zolberg, Astri Suhrke. Sergio Aguayo, 1989. *Escape from Viol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줄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유럽난민사태발생이 매우 심각해지기 전인 2000년대 이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난민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이 힘들어지면서 난민문제의 장기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⁴¹⁾ 2만 5천명 이상의 난민이 한군데에 5년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장기화된(protected) 난민상황이라 일컫는데 본국 상황이 계속 불안정하거나 위험하고,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서 난민들이 자구책을 모색해야하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다.⁴²⁾

따라서 난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왜 도망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출신국에서의 원인제거를 위해 국제사회가 정치외교적 해법마련에 고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 난민들은 대다수가 출신국과 유사한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인접국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입국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국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를 내세워 난민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타국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면, 단기적인 안정은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안보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VI. 사례연구: 아프리카 분쟁과 난민의 역학

1. 제 1, 2차 라이베리아 내전과 난민문제

노예제 폐지 후 흑인들을 미국사회 내에 융합시킬 방안을 찾지 못한 미국인들은 미국 밖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자유인이 된 아프리카계 노예들을 이주시키자는 토마스 제퍼슨의 ‘식민화’ 계획을 토대로 1824년 서아프리카에 라이베리아가 설립하였다. 1847년 조셉 제킨스 로버츠를 초대대통령으로 독립공화국을 선포한 후 1980년까지 소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식민지 개척자와 그 후손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이 전체 인구의 95%에 달하는 다수 토착민들을 억압적으로 지배하였다. 미국에서 온 흑인들은 토착 원주민들보다 피부색이 덜 검었고 영어를 쓰면서, 토착민들에게도 미국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정치적, 경제적 차별을 일삼았다. 이에 반발한 말린케

41) “UN Agencies ‘Broke and Failing’ in Face of Ever-Growing Refugee Crisis, *The Guardian*, September 6, 2015,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sep/06/refugee-crisis-un-agencies-broke-failing>

42) U. S. Department of State, “protracted Refugee Situations,” <http://www.state.gov/j/prm/policyissues/issues/protracted/>.

족을 비롯한 원주민들은 1980년 4월 쿠데타로 아메리코-라이베리아가 주도하는 정부가 전복될 때까지 반란과 폭력항거를 지속하였다. 한편, 제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미국은 소련과 공산주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핵심국가로 라이베리아 정부를 지원하였다.⁴³⁾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토착민 크란족 출신인 새뮤얼 케니언 도는 미국출신 흑인들과 다른 토착민 종족들을 학살하고 독재정치를 이어갔다. 1985년 11월 토착민 기오족인 토마스 키옹파가 기오족과 마노족 군인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키나 실패하여 처형되는 사건 이후, 사무엘 도는 크란족으로만 이루어진 라이베리아군(AFL)을 기오족과 마노족의 거주 지역으로 보내 보복학살을 자행하였다. 1986년 부정선거를 통해 사무엘 도가 대통령에 재선되자, 리비아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찰스 테일러가 기오족과 마노족과 협력하여 라이베리아 민족애국전선(NPFL)을 결성하고 1989년 12월 코트디부아르 국경을 통해 공격을 개시하여 내전이 발생했다.⁴⁴⁾

테일러의 공격이 시작된 후 몇 주 사이에 16만여 명의 라이베리아인들이 인접국인 기니와 코트디부아르로 탈출하였으며, 이후 1990년 후반까지 70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라이베리아 인구의 3분의 1에 버금가는 규모였다. 1990년 8월, 라이베리아 인도적 위기상황과 내전의 국제화를 우려하여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평화유지군인 휴전감시그룹(ECOMOG)을 파견하였다.⁴⁵⁾

1990년 내전양상이 사무엘 도 정권에게 매우 불리해지자 그동안 정권유지를 도와주던 미국도 그의 독재정치가 내전의 원인이라는 판단 하에 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대신, NPFL에서 이탈하여 결성된 라이베리아 독립국민애국전선(INPEL)의 친미성향 지도자인 프린스 존슨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으로의 망명이 거절된 사무엘 도는 결국 존슨에 의해 살해되었고, 만딩고족 중심의 무슬림조직 라이베리아 민주통일해방운동(ULIMO)이 테일러를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아모스 소여가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었다. 존슨과 테일러는 각각 소여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1992년 내전은 테일러의 NPFL, 소여의 INPEL, 그리고 존슨의 ULIMO가 3파전 양상으로 확산되었다. 더욱이 ULIMO가 분열하여 사무엘 도의 부하였던 크란족 출신

43) Stephen Ellis, 2006, *The Mask of Anarchy Updated Edition: The Destruction of Liberia and the Religious Dimension of an African Civil War*, (London: Hurst & Co.Ltd, September).

44) Peace Direct. 2010. "Liberia: Conflict Profile," *Insight on Conflict*, January, <https://www.insightonconflict.org/conflicts/liberia/conflict-profile/>.

45) Adekeye Adebajo, 2002, *Liberia's Civil War: Nigeria, ECOMOG, and Regional Security in West Africa: Building Peace in West Africa: Liberia, Sierra Leone, and Guinea-Bissau* (New York: Lynne Rienner).

의 루즈벨트 존슨이 ULIMO-J파를 세우고, 크란족의 다른 세력이 크로마파를 만들면서 내전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1990-92년 라이베리아는 90% 이상은 테일러가 장악한 ‘대 라이베리아(Greater Liberia)’와 ECOMOG의 지원을 받는 소여를 지도자로 하는 임시정부로 나뉘어있었다. 한편, 테일러는 이웃국 시에라리온의 반군조직인 혁명통일전선(RUF)의 지도자인 아흐메드 포다이 산코와 협력하여 라이베리아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시에라리온의 내전에도 개입하였다.⁴⁶⁾

1993년 라이베리아 내전세력들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전투는 계속되었고, 1997년 7년 간의 치열한 내전 후에야 서아프리카 각국경제공동체(ECOWAS)의 감시 하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선거가 실시되어 테일러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테일러는 집권 후 내전이 끝났다는 이유로 유엔평화유지군을 철수시키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적을 살해하고 인권탄압을 일삼았으며 다이아몬드 확보를 위해 1999년 시에라리온에서 반군을 지원하여 내전을 일으키고 직접 용병을 보내 학살을 자행하였다.

2000년 2월 라이베리아 내 반 테일러 세력들은 화해와 민주주의를 위한 라이베리아인 연합(LURD)을 조직하여 내전이 재발하였고, 2001년부터 정부군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반군들 역시 무자비하여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국경지대 난민촌은 약탈, 강간, 살상 등으로 인도적 위기상황이 심각하였다. 2003년 반군은 수도 몬로비아까지 진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라이베리아 민주운동(MODEL)이라는 새 반군조직이 나타나 내전상황은 혼란을 거듭하였다. 그 해 6월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나 며칠 가지 않아 내전이 다시 발발하였고, LURD 반군은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여 수도에서만 1천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미국의 압력 하에 테일러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나이지리아로 망명하고 5만여 명의 유엔평화유지군(UNMIL)이 파견되면서 1차(1989-1997년), 2차(1999-2003년) 라이베리아 내전은 25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채 14년 만에 막을 내리고, 미국이 지원하는 3,500명의 서아프리카연합군이 10만 명이 넘는 반군의 무장해체에 성공하였다.⁴⁷⁾

1, 2차 내전을 겪으면서 최대 700,000명까지 기록했던 라이베리아 난민들 대다수는 체류국에서 빈곤에 허덕이고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의 정부군과 반군 양측 모두에게 탄압과 약탈이 대상이자 전투시 인간방패나 병력으로 희생당하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탈출해야했다. 정부군과 반군의 공격과 반격의 악순환 속에 라이베리아인들은 거주지를 수시로 옮겨야 했다.

46) 상동.

47) Ellis, 2006, 상동.

1989년 내전발발로 난민이 되었던 라이베리아인들의 80% 이상은 휴전협상이 진행될 때나 테일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1997년에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1999년 내전이 재발하면서 더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이웃국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으로 많은 라이베리아 난민들이 희생당하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야했다.⁴⁸⁾

제 2차 내전을 종식하는 아크라(Accra) 평화협정 당시 UNHCR은 50-60만 명에 이르는 라이베리아 실향민을 위해 여러 곳에 난민촌들을 세웠다. 이들 중 일부는 난민 자격으로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들로 넘어가기도 했으나 월경한 라이베리아인들이 모두 난민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었다. 2004-2007년 사이 UNHCR은 코트디부아르, 기니, 시에라리온, 가나에서 16만 명의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였으며, 이후로도 줄곧 상기의 국가들에서 개인 난민을 귀환 시키고 있다. 라이베리아 난민들의 경우는 다른 서아프리카 난민들에 비해 조직적 귀환에 의해 돌아 온 난민보다 자발적으로 돌아 온 난민들이 더 많다. 한편, 2003년 평화협정 당시 라이베리아에는 20만 명의 IDP가 있었으며, 그 중 60%가 수도 몬로비아의 19개 난민촌에 흩어져 있었다.⁴⁹⁾ 이들 난민촌에는 유엔과 국제구호단체들의 구호품과 기본적인 지원이 제공되었으나 여타 공공건물이나 학교 등으로 대피한 IDP들의 상황은 여전히 더 열악하였다.⁵⁰⁾

2005년 11월 앨런 존슨 설리프, 전 유엔개발계획 국장이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2006년 3월 테일러가 나이지리아로부터 시리아 아래온의 내전에 관여한 전쟁범죄 혐의로 시에라리온으로 체포되었고, 2012년 4월 ICC 국제전범재판을 통해 50년형을 받았다. 설리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UNHCR이 관리해오던 실향민촌들이 폐쇄되면서 IDP들을 위한 보호책, 구호품지원에 대한 공식 대책도 종료되었다. 설리프는 IDP들이 수도 몬로비아와 같은 도시의 난민촌에서 살던 불안정한 삶을 청산하고 귀향하게 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 하였고, 유엔 및 국제 NGO들의 도움으로 귀환계획과 원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⁵¹⁾

그러나 국내 실향민촌 폐쇄는 유엔과 NGO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다. IDP들이 돌아갈 고향에 이들을 수용할만한 자원이나 인프라가 갖추지

48) "Hundreds flee Liberian port city as rebel gain access to the sea," Agence France-Press, February 14, 2003,

<http://reliefweb.int/report/liberia/hundreds-flee-liberian-port-city-rebels-gain-access-sea>.

49)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IDMC), 2015, "Liberia: Country Information 2015," <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database/country/?iso3=LBR>.

50) 상동.

51) Neill Wright, et al. 2007. Real-time evaluation of UNHCR's IDP operation in Liberia, UNHCR, PDES 2007/02, <http://www.unhcr.org/46a4ae082.html>.

못한 경우가 허다하였고 더 이상 같이 돌아갈 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정부는 IDP 귀향계획을 접기로 하였으나, 실향민촌에 잔류하는 것도 임대료를 내고 그 지역 지주와 협상을 해야 하거나 불법 거주를 하는 등 힘들기는 매한가지였다.⁵²⁾

한번 국내 실향민촌이 폐쇄되면, 내전기에 몬로비아로 탈출한 사람들은 더 이상 국내 실향민이 아닌 도시 중심에 있는 거대한 빈곤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내전 종식 후에도 몬로비아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는 경제적 원인이 더 크지만, 몬로비아를 비롯한 라이베리아의 다른 도시들의 인구가 급증한 것은 내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1995년 초까지 몬로비아의 인구는 130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1986년 인구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⁵³⁾

요약하면, 라이베리아 난민들이나 IDP는 대부분 내전으로 인한 피해자였으며 분쟁중인 특정 종족이나 군벌(파벌)에 속한 경우는 의도치 않게 분쟁에 연루되거나 학살이나 보복학살 및 강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많은 난민들이 인접 서아프리카 국가들로 탈출하였지만, 이들 국가들도 내전과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유사한 처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라이베리아 난민들은 정착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강제송환을 당하거나 다른 피신처를 찾아야 했다.

2. 제 1, 2차 수단 내전, 다르푸르 사태 및 남수단 내전과 난민문제

역사적으로 수단지역은 많은 제국들에 의해 통제되었고, 19세기 초에는 투르크-이집트 제국의 침공으로 내부분열이 심해졌다. 전통적으로 남부에는 원시종교를 섬기는 햄계 니트로인으로 불리는 흑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원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 투르크-이집트제국은 ‘젤라바’라는 북부 아랍계 노예무역상을 통해 남부인들을 노예로 끌어가면서 수단 내 인종간 반목과 갈등이 커졌다. 한편, 1890년대 영국은 벨기에 및 프랑스와 수단 등지에서 식민지 확장을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 이집트와 한때 합병되었던 수단 영토를 다른 서구 세력이 정복할까 우려하여 1899년 이집트와 공동통치협정을 맺고 수단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나일강 전체의 통제권을 갖고자한 영

52) Jesuit Refugee Service, 2006, Six Months After the Official Closure of the IDP Camps. Assessment of the IDP Return Process in Liberia."

53) Patricia Fagen, 2011. Uprooted and Unrestored: A Comparative Review of Durable Solutions for People Displaced by Conflict in Colombia and Liberia, UNHCR, PDES, August, <http://www.unhcr.org/4e576a739.html>.

국은 이집트-수단왕국을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이집트의 주장을 좌절시켰다.⁵⁴⁾

1924년 이집트 군이 수단에서 철수하자 영국은 남북으로 통치구역을 나누어 북부는 분할통치를 하여 북부는 이집트와 같이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을 신봉하도록 하였지만, 남부는 다른 동아프리카 식민지와 같이 영어를 쓰고 기독교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수단 전역이 이슬람화 되는 것을 경계한 영국은 노예무역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남북 분할통치 정책을 편 것이었다. 그러나 북부 아랍계 무슬림들이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확대하자 1946년 남북통합을 결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남부인을 통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남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한 남부 흑인들은 일방적인 통합을 거부하며 남북 갈등이 더욱 커졌다.⁵⁵⁾

1952년 이집트에서 혁명이 성공하고 1953년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집트의 새로운 지도층이 된 무함마드 나가브와 가말 압둘 나세르는 이집트와 영국이 둘 다 수단의 영유권을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북수단과 남수단의 주민투표로 독립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1956년 1월 수단공화국이 탄생한다. 수단에 연방제를 만들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북부 정부가 무시하자 남부인들은 독립을 요구하며 1955년 8월 공격을 시작하여 아냐냐(Anyanya) 반란이라고도 불리는 1차 내전이 발발하였다. 이들 남부인들의 조직력이나 군사력은 매우 미흡하여 1963년까지는 단순한 게릴라식 반란 정도로 북부정부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은 점점 폭력적인 분리주의운동으로 커져갔다. 그러나 남부 반란조직들 간에도 분파가 다른 종족들 간 반목과 분열이 있어 단결된 투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⁵⁶⁾

북부 정권도 분파싸움과 정치 불안정으로 남부 반군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여력이 없었다. 독립 후에도 이웃 강국 이집트의 지속적인 간섭 및 수자원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졌고,⁵⁷⁾ 국내적으로 정권다툼이 심하고 국민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 간 종파싸움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스마일 알 아즈하리가 이끄는 첫 독립정부는 몇 달도 안 되어 여러 보수 연합세력들에 의해 실각하였고, 이 연합세력은 1958년 이브라힘 아부드 대

54) P. M. Holt and M. M. Daly, 2011, *A History of the Sudan: From the Coming of Islam to the Present Day*, 6th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55) 상동.

56) Douglas H. Johnson, 2004, *The Root Causes of Sudan's Civil War* (African Issues), 2nd e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57) 최동주. 2004. "나일 유역 분쟁과 수단 내전: 수자원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19집.

령의 쿠데타로 전복되었으며, 각지에서 군사정권에 대한 분노와 반발로 시위가 이어졌고 과도 정부가 나타났다. 그러나 1966-69년 사이 이슬람교도가 이끄는 일련의 과도정부들은 경제 및 종족문제와 분쟁상황 해결에 무능함을 보였고, 1969년 5월 가파르 니메이리 대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군부 내 공산주의자와 반공산주의자 분파의 내분으로 1971년 7월 수단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켜 니메이리는 잠시 실각하나 이내 반공주의 군인들에 의한 반격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 후에도 계속하여 크고 작은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한편, 1972년 3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부에 자치권부여를 골자로 한 평화협정이 맺어지기까지 17년을 지속된 남부와 북부 간 내전으로 50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⁵⁸⁾

1972년 휴전 후 자치권을 획득한 남부지역에서는 다수와 덩카족과 대립하는 누어족을 비롯한 종족대립과 파벌갈등이 심해져 사회통합이 힘들었다. 북부 정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이용해 다시 남부에서의 지배력을 차지하려고 함으로써 불안한 휴전상태가 유지되었다. 1983년 4월 니메이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슬람법(샤리아)을 공포하여 수단전역을 회교국가로 만들려하자 남부에서는 존 가랑의 주도로 수단인민해방군(SPLA)을 창설하면서 내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1차 내전이 북부와 남부의 종족 및 종교분쟁이었다면, 2차 내전은 좀 더 복잡한 원인과 양상을 띠었는데, 내전촉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1978년 남부 벤티우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유전개발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려는 북부에 반발하여 남부인들이 벤티우 유전지역을 공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⁵⁹⁾

이러한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도 수단의 끊이지 않는 내전에 일조하였다. 독립 후에도 수단정부군은 영국으로부터 무기공급 및 군사훈련을 받았으나, 1967년 제 3차 중동전쟁 (6일 전쟁)을 계기로 영국, 미국, 서독과 관계를 끊었다. 그 후 1977년까지 소련으로부터 군사훈련 및 무기와 기술 원조를 제공받는 한편, 이집트와도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웃국 에티오피아가 소련의 힘을 얻어 사회주의 국가를 정권을 수립한 것에 우려를 느낀 수단은 소련과의 계약을 끊고 중국과 무기거래를 시작하였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에서의 소련사회주의 정권수립을 미국도 수단정부에 상당량의 무기판매를 재개하였지만 2차 내전이 시작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여 판매량을 줄였고 1987년 중단하였다.⁶⁰⁾

58) 상동.

59) Shin-wa Lee, 2001, "Emerg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Refugees, and Conflict,"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8, No. 1.

60) Johnson, 2004, 상동.

한편, 1985년 4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니메이리는 실각하고 1986년 4월 선거를 통해 군사평의회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은 사디크 알마디는 SPLA와 평화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점점 내전이 격렬해지고 남부에서는 기근과 가뭄이 심해지고 난민이 늘어갔다. 1989년 6월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NIF)의 지원 하에 쿠데타에 성공하여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그 해 5월 비공식적으로 체결되었던 휴전은 10월에 결렬되었고, 1991년 3월보다 엄격한 이슬람법을 발효하였다.⁶¹⁾

심화되는 분쟁 속에서 1993년 이래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케냐정부, 그리고 정부 간 개발기구(IGAD)는 수단의 분쟁종식을 위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과 자이레 등은 휴전을 중용하였으나 교전은 끊이지 않았다. 남부지역이 주로 싸움터였기 때문에 북부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반면, 남부에서는 반군 SPLA 내 권력투쟁이 심해지고 북부 정부가 이를 부추기면서 남북 간 전투보다 남부 내 투쟁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97년 수단정부가 테러리스트 조직을 후원해온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미국은 대규모 제재를 가하였고, 이는 남북 간 평화협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12월 바시르는 남부 반군공격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가긴급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이집트와 리비아가 지원함에 따라 평화협정은 다시 무산되었다. 이런 식의 부침이 거듭되다가 2005년 1월 양 측은 2011년 1월 남부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 실시를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0만이 넘는 사망자와 40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키는 22년 간의 2차 내전을 종식하였다. 하지만 종전 후에도 남부지역에서는 계속된 종족 간 충돌로 사망자와 난민들이 속출하였고, 북부에서도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다.⁶²⁾

남북 간 평화협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2003년 2월 수단의 서부 지역인 다르푸르에서 종교, 생태환경 및 경제문제가 주요인이 되어 아프리카계⁶³⁾ 반군 수단해방운동(SLM)과 북부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랍계 바가리족 유목민 민병대인 잔자위드(Janjaweed) 사이에 분쟁이 발발하였다. 가뭄으로 지역사막화가 악화되면서 바가리족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 비아랍 아프리카계의 농경지를 침범해 오면서 이 지역 인구가 폭증하여 갈등이 생겼다. 북부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들의 갈등상황을 방치하였고, 아랍계 인사를 다르푸르 지방정부 관리직에 임명하는 등의 아랍화 정책을 강제로 추

61) 상동.

62) World Food Programme, "Sudan," <https://www.wfp.org/countries/sudan/overview>.

63) 다르푸르 흑인들은 이 지역 총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남쪽 누비아 기독교 흑인들과 달리 대부분 무슬림을 믿는다.

진함으로써 다르푸르인들 의 반발이 높이 샀다.⁶⁴⁾

2003년 다르푸르에서 기독교계 흑인 반군들이 내란을 일으키자 정부 군 병력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시르 정부는 종족 간 갈등을 악용하여 친정부 계열의 아랍족과 잔자위드를 선동하여 반란을 진압 하도록 만들었다. 정부의 묵인 하에 잔자위드는 무차별한 살상과 강간을 자 행하여 2003-2006년 사이 40만 명 이상이 죽고 250여만 명이 차드와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도망쳤다. 이 사태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규정한 ‘인 종청소’(ethnic cleansing) 범죄에 준하여 2009년 바시르 대통령에게 구속영 장이 발부되었고 다른 북부정부 고위관리들과 민병대 지도자들도 기소되었 으나 중국, 케냐, 차드, 나이지리아, 이집트들의 비호 하에 영장을 거부하고 있다. 2006년 5월 아프리카연합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북부정부와 SMM 의 계파인 미미 미나위단이 잔자위드와 SLM을 동시에 해체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SLM의 다른 계파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전투는 계속되 었다.⁶⁵⁾

한편 남수단은 2011년 7월 공식적으로 독립하고 유엔의 193번째 회 원국이 되었다. 2005년 반군지도자 가랑이 헬리콥터 추락으로 의문사한 후 반군을 이끌던 살파 키르 마야르디트가 초대대통령은 취임 후 독재정치를 강화하여 마차르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 또다시 내 전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숨지고 220만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면 서 서방국가와 유엔의 중재가 시작되어 2015년 8월 평화협정을 맺고 2016 년 4월 마차르가 연립정부의 수장이 되나 석 달도 넘기지 못해 내부 군벌갈 등으로 또 다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수십만의 난민들이 우간다, 동부 에 티오피아, 케냐, DR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탈출하였고, 2016년 9월 기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에 이어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배출한 나라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⁶⁶⁾ 식민지 시절 이전부터 남수단 내 부족갈등은 서로를 이간질하고 증오를 부추겼고, 남부인들을 탄압하고 내전 중 적 진영이었던 젤라바, 북부 정부군, 잔자위드 등과 협력하여 남부 내 경 쟁 부족을 말살하려는 시도도 종종 있었다.⁶⁷⁾

64) Samuel Totten and Eric Markusen, eds. 2006. *Genocide in Darfur: Investigating the Atrocities in the Sudan*. (New York: Routledge).

65) Richard Barltrop, 2011, *Darfu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w York: I.B. Tauris & Co.Ltd).

66) UNHCR, 2016, “The Number of South Sudanese Refugees Reaches 1 Million Mark,” September 16, <http://www.unhcr.org/en-us/news/briefing/2016/9/57dbb5124/number-south-sudanese-refugees-reaches-1-million-mark.html?query=sudan%20refugees>.

67) Lauren Ploch Blanchard. 2016. “Conflict in South Sudan and the Challenges,”

2016년 1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남수단에서 르완다 대량학살과 유사한 인종청소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수단 현지방문 조사단에 의하면, 무장단체 세력이 확대되고 64개 부족 간 균열로 혐오 발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기아와 강간, 촌락방화, 그리고 이미 총격이 시작된 지역도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64개의 부족 간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미 총격을 받은 지역 또한 생기고 있다.⁶⁸⁾

수단과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비에이와 같은 주요 유전지대가 국경선 바로 부근에 있고 석유수출항구나 파이프라인 등의 배분문제 등 석유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여 언제라도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수단 내전들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루되어 쌍방(dyad)으로 싸우는 복잡한 그물망같이 ‘서로 겹친 내전’(civil war of interlocking civil war)⁶⁹⁾으로 남북 간 분쟁이 다르푸르, 남코르단, 블루나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수단난민들은 시리아나 여타 북아프리카와 중동난민들과는 달리 유럽으로 달리 대부분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 머물고 있고, 2012-2016년까지 남수단 난민 515명만이 EU국가에 망명자로 수용이 되었는데,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유럽 망명자 전체의 0.02% 정도에 불과하다.⁷⁰⁾

더욱이 다르푸르의 난민의 경우는 남수단 난민사태에 과몰입 ‘잊혀진 난민’이 되어가고 있다.⁷¹⁾ 이들 난민 대부분은 차드에 체류 중인데, 이곳에 대한 지원금은 매년 삭감하여 현재 예산으로는 UNHCR이 구호활동조차 힘든 형편이다. UNHCR/WFP의 보고에 따르면, 차드 거주 450,000명의 난민 중 362,000명이 수단, 특히 다르푸르 난민인데, 이들은 극심한 식량부족과 열악한 캠프생활로 건강악화가 심각한 정도이다. 이에 더하여 수단 정부를 향한 무력투쟁을 이어온 반군들은 난민으로 가장하여 차드의 동부지역으로 넘어가 공격을 감행하거나 난민촌의 난민들을 병력으로 동원하고 있어 이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tember 22.

68) UN News Centre, 2006, “Possibility of Genocide in South Sudan is ‘all too real,’ Ban Warns in Opinion Piece,” December 16,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5822#.WFeRNRvhA2w>.

69) Atta el-Battahani. 2006. “A Complex Web: Politics Conflict in Sudan,” *Peace by Piece: Addressing Sudan’s Conflicts*, Accord 18, <http://www.c-r.org/accord/sudan/complex-web-politics-and-conflict-sudan>.

70) Reliefweb, 2016, “Out of Sight, Out of Mind: Why South Sudanese Refugees are not Joining Flows to Europe,” June 14, <http://reliefweb.int/report/south-sudan/out-sight-out-mind-why-south-sudanese-refugees-are-not-joining-flows-europe>.

71) IRIN (The inside story on emergencies), 2012, “Darfur’s Forgotten Refugees,” August 10, <http://www.irinnews.org/feature/2012/08/10/darfur%E2%80%99s-forgotten-refugees>.

지역은 유엔의 감찰대상인 동시에 수단 정부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⁷²⁾

한편, 우간다로 탈출한 남수단 난민들의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간다에서 가장 큰 난민촌 중의 하나인 아주마니(Adjumani)에 수용된 50,000명의 난민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도 하고 평화공존에 관한 교육도 받고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별목과 관련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고 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다.⁷³⁾ 이는 후술한 르완다, DR 콩고 등에서와 같은 거대한 갈등은 아니나, 지역민과 난민들 사이에 일정한 수준의 갈등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남수단 상황악화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남수단 난민사태가 유입속도나 규모, 체류기간, 그리고 난민전사의 구성비율 등에 따라 안보위협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3. 르완다의 내전과 대량학살 및 후투난민

역사적으로 르완다는 복잡한 왕국들이 난립하기는 했지만, 다수의 후투족(약 85%)과 소수의 투치족(약 15%)은 통혼 등으로 종족개념이 모호한 채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 1895년 독일이 르완다를 점령하였으나,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벨기에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1923년 국제연맹이 르완다와 부룬디를 합병하여 벨기에가 위임통치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루안다-부룬디 왕국이 생겼다. 벨기에는 투치와 후투를 분열시켜 효과적인 식민지배정책을 펴고자 1935년부터 투치족을 중간 지배계층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종족 차별 신분증 제도 등을 통해 투치우대정책을 폈고, 차별을 받는 후투족의 박탈감과 분노가 커지면서 양대 종족 간 반목과 갈등이 커지게 되었다.⁷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유엔은 르완다를 신탁통치령으로 바꾸었고, 1950년 투치족 왕 무타라 3세가 주도하는 독립 움직임을 알아챈 벨기에는 후투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한다. 1954년 무타라 3세는 벨기에에 르완다의 독립을 요구하였고, 1955년 벨기에에는 J. P. 해로이를 루안다-부룬디 총독으로 임명한다. 1957년 해로이 총독 등의 지원 하에 후투족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일명 후투선언(Manifesto)을 발표하였고, 점진적인 독립을 지향하는 후투

72) Eric Reeves, 2014, "Darfuri Refugees in Eastern Chad: Among the World's Most Forgotten People," Sudan: Research, Analysis and Advocacy, July 18. <http://sudanreeves.org/2014/07/18/darfuri-refugees-in-eastern-chad-among-the-most-forgotten-people-8-july-2014/>.

73) "South Sudanese Refugees in Dispute with Ugandan Hosts over Deforestation," 2014, *Sudan Tribune*, March 21, <http://www.sudantribune.com/spip.php?article50366>

74) Gérard Prunier, 1997, *The Rwanda Crisis: History of a Genocid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pril).

해방운동당(PARMEHUTU)이라는 군사조직을 만들었다. 1959년 무타라 3세가 의문사 당하자 투치족은 후투 지도자들을 살해하였고, 르완다전국연맹(UNAR)이라는 군사조직을 창설하고 왕위에 오른 키게리 5세를 중심으로 벨기에에 즉각 독립을 요구하였다.⁷⁵⁾

PARMEHUTU와 UNAR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1959년 11월 벨기에의 지원을 받은 PARMEHUTU가 반란을 일으켜 종족간 분쟁이 터졌다. 1961년 키게리 5세가 대그 함마숄트 유엔 사무총장에 내전종식 등과 관련한 논의차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킌사사로 간 사이, 벨기에의 지원을 받은 후투족 도미니크 음보뉴무트와가 쿠데타에 성공하여 군주제를 폐지하고 르완다-우룬디 공화국을 선포한 후 과도정부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 내전과 정치적 소용돌이로 인해 1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고, 15만 명의 투치족이 부룬디, 우간다 등으로 도망쳤다.⁷⁶⁾

1962년 7월 벨기에로부터 독립하면서 르완다-우룬디는 르완다와 부룬디로 나누어졌다. 르완다에서는 유엔의 감독 하에 선거가 치러져 PARMEHUTU 정당이 승리하여 카이반다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식민지 시절 투치우대정책에 대한 반발로 후투족을 우대하는 종족차별 신분제를 유지하면서 투치족에 대한 차별정책을 폈다. 1963년 12월 부룬디로 추방된 투치족이 부룬디의 투치족 정부의 지원을 받아 르완다를 기습 공격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르완다에 체류하던 2만 명의 투치족이 살해되고, 1만 명이 부룬디와 우간다로 쫓겨났다. 1965년 대선을 통해 PARMEHUTU 일당독재를 확고히 한 카이반다는 계속하여 투치족을 박해하고 투치난민들의 귀환을 반대하는 정책을 폈다. 1969년 당의 이름을 민주공화운동(MDR)로 바꾸고 카이반다가 다시 당선되었다. 한편, 부룬디에서는 1972년 투치 정부군에 의해 20만 명의 후투족이 살해되면서, 부룬디의 후투족은 르완다로 도망갔고 르완다의 투치족은 부룬디로 탈출하였다. 이러한 난민들의 움직임들 속에 양국 간 긴장관계도 고조되었다.⁷⁷⁾

1973년 7월 후투족 쥐베날 하비야리마나가 쿠데타에 성공하여 카이반다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정국전환을 위해 투치족을 대량 살상하였다. 1975년 국가개발혁명운동(MRND)을 창당하고 대통령이 된 하비야리마나는 프랑스의 지원 하에 일당독재를 구축하고 투치족에 대한 차별정책을 강화하였다. 1979년 인접국에 체류하는 르완다 투치난민들은 후투족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간다에서 폴 카가메의 주도 하에 르완다민족통일동맹(RANU)이 결성하였고, 1983년, 1988년 대선을 통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한 하비야리마나는 계속하여 르완

75) 상동.
76) 상동.
77) 상동.

다 내 투치족들을 탄압하였다. 1986년 카가메는 RANU를 르완다애국전선(RPF)로 이름을 바꾸고 5천명의 반군조직을 만들었고, 1990년 10월 르완다를 공격하였다.⁷⁸⁾

프랑스와 벨기에가 지원하는 자이레군이 후투족 르완다 정부군을 도와 RPF를 격퇴한 후 르완다의 투치족과 후투온건파들 수천 명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광물자원 등이 풍부한 콩고의 인접지역인 르완다에서 프랑스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의 도움으로 RPF의 공세는 점점 증가하였고, 1991년 르완다는 다당제를 허용하는 헌법을 통과시켰으나, 1992년 이 내전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이집트, 남아공까지 개입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마침내 1993년 8월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졌고, 유엔은 1993년 10월 2,550명가량의 유엔르완다지원단(UNAMIR), 즉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수도 키갈리에 비무장지대를 세우고, 아루샤 조약이 요구하는 양 종족이 참여하는 범과도 정부 수립 등을 지원하는 임무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후투 강경파의 권력배분 반대로 범과도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도 치루지 못하였고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구축하는 리더십도 부재한 가운데 불안한 휴전상태가 이어졌으며, RPF 반군을 피해 150만 명가량의 후투족이 난민이 되었다.⁷⁹⁾

한편, 같은 해 10월, 부룬디에서 최초의 민주선거로 선출된 멜키오르 은다다에 후투족 대통령이 투치 군부에 의해 살해되면서 내전이 발발하여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여파가 르완다의 아루샤협정까지 결렬시켰다. 1994년 1월 10일, 로메오 달레어 UNAMIR 사령관은 후투족 강경파 정치인들과 비공식 무장단체인 인테라하르웨(Interahamwe)가 투치족을 몰살하려는 계획 하에 프랑스,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백인정권, 이집트 등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아 은닉하고 있다는 제보를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 알리는 팩스를 보내어 무기고 무기압수 작전을 위한 승인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에 출장 중이던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과 코피 아난 유엔평화유지국 책임자를 포함한 본부 측에서 이 요청의 심각성을 간과하여 거절하였다.⁸⁰⁾

4월 6일 탄자니아에서 내전종식을 위한 회담이후 키갈리 공항으로 돌아오던 하비야리마나 대통령과 부룬디의 후투족 출신 시프리아 은타라미라를 태운 비행기가 격추되면서, 극단적 후투 강경파에 의한 투치족과 후투 반대파들은 “투치 바퀴벌레들이 우리 후투 대통령을 죽였다”라는 식의 선동적 방송을 하며 후투

78) 상동.

79) UN Security Council. 1999, “UN 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1994” Genocide in Rwanda, December, UN Security Council (S/1999/1257).

80) Roméo Dallaire, 2003, *Shake Hands with the Devil: The Failure of Humanity in Rwanda* (Toronto: Random House Canada).

족들을 자극함으로써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사실, 비행기 요격사건은 권력분배를 반대하는 후투족 대통령 경호대가 벌인 일로 투치족을 몰아내려하는 인종적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후투 온건파들도 타파하려는 정쟁이었다. 사건 발생 하루 후인 4월 7일 후투 민병대들이 투치족 출신 아카데 우월링이마나 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관료를 살해하고 후투족 출신 장 캄반다를 총리가 되어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시작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대응하여 RPF는 후투정부를 공격하면서 종족 간 전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내전 재발 1주일 사이에 20만 명이 투치족이 남쪽으로 밀려가는 후투군에 의해 학살당하였다.⁸¹⁾

후투 강경파는 요격사건 직후 벨기에 유엔평화유지군 11명도 살해하는데, 이는 유엔이 보낸 평화유지군들 중 가장 강력한 측을 표적으로 희생시키면, 다른 저개발 국가들에서 온 훈련과 조직력이 결여된 평화유지군들은 자연스레 와해되어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다. 실제로 벨기에는 평화유지군들을 철수시켰고, 4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휴전협정이 깨져 “지킬 평화가 없다(no peace to keep)”는 근거로 UNAMIR 병력을 27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르완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정부군의 학살을 피해 60만 명에 달하는 투치족이 부룬디, 우간다, 탄자니아로 도망쳤고, 양 종족간 내전과 보복학살은 점점 심해졌다.⁸²⁾

학살이 점점 심해지면서 5월 17일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축이 된 평화유지군 5,500명을 증원하여 파병(UNAMIR II)하는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통과되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관심부재로 파병이 지연되었다. 오히려 6월 22일, 유엔은 후투 정부와 민병대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는 프랑스의 2,500명 독자파병을 승인하였고, 이들에 미군 800명이 추가 투입된 이른바 터키옥 작전(Operation Turquoise)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프랑스군이 순찰하는 것을 은신처에서 나온 투치족들은 대부분 후투 민병대에게 프랑스군의 방관하에 죽임을 당하였다.⁸³⁾

7월 4일 카가메가 이끄는 RPF가 키갈리를 정복하고 캄반다 후투족 정권을 몰아내는데,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후투족이 죽임을 당했다. 4월 6일 대학살이 시작한 이래 7월 18일 투치족이 승리를 선언하기 까지 약 100일 동안 투치족과 온건파 후투족, 그리고 소수민족인 피그미 트와족 80만 명 이상이 살해된 것인데, 이는 당시 르완다 총 인구 760만 명의 10% 이상에 해당한다. 되고서야 대량학살(genocide)은 멈추었다. 카가메가 부통령 및 국방장관으로서 실질적 권력은 장악하였으나 온건파 후투족 파스티르 비지몽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종족

81) UN Security Council, 1999, 상동.

82) Nicole Winfield, 1999, “UN Failed Rwanda,” December 16, Global Policy Forum (GPF).

83) Dallaire, 2003, 상동.

간 융화를 강조하며 후투족과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보복을 두려워한 후투족 300만 명은 서북부 국경을 넘어 자이레 동부의 고마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서남쪽에 위치한 프랑스군 주둔 지역이자 후투족 임시정부가 있는 기타라마로 피신하면서 이른바 “대호수(Great Lakes) 난민위기”가 벌어졌다. 그 해 10월 프랑스군의 묵인 하에 학살주범인 구정부 지도층과 민병대 3만여 명은 자이레의 고마 난민촌으로 탈출하여 르완다 망명정부를 세우고 후투난민들을 병력으로 영입하였으며, 1995년 1월 르완다 남서부 나마새크를 침입하여 RPF 신정부군과 격전을 벌였다.⁸⁴⁾

1994년 7월 이래 후투난민들은 자이레, 탄자니아, 부룬디, 우간다, 르완다 남서부에 수용되었는데, 콜레라, 기아, 물 부족 등으로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1994년 8월이 되어서야 프랑스군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은 유엔평화유지군(UNAMIR II)은 애초 결의한 군 병력 규모의 절반인 2,770명이 파견되었었지만,⁸⁵⁾ 1996년 4월 목적달성에 실패한 채 임무를 종료하였다. 1997년까지 계속하여 투치족으로 구성된 르완다애국군(RPA)의 보복학살은 이어져 후투족 수용소나 난민캠프가 포격을 받거나 귀환난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많았다. 이를 두려워하여 인접국을 떠돌던 난민들은 그 나라의 내전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1996년 7월 부룬디에서 투치족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자 후투난민 2만 명이 돌아왔고, 자이레와 르완다정부의 합의로 난민 백만 명이 송환되기도 하였다.⁸⁶⁾

1996년 카가메는 미국과도 회담하고, 자이레의 반군지도자인 로랑 카빌라와 연합하여 자이르로 탈출한 후투 민병대를 색출하기 위해 자이레 동부 난민촌을 공격하였다. 이를 계기로 카빌라의 콩고-자이레해방민주세력동맹(AFDL)이 우간다의 지원을 받아 제 1차 내전을 일으켰다.⁸⁷⁾

2000년 4월 카가메는 자신을 비판하는 비지몽구 대통령을 해임하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다. 2001년 르완다 구정부군과 민병대는 다시 르완다를 공격하였고, 이에 대응한 RPF 정부군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구 자이레)의 반군과 연합하여 후투족 반군기지를 침공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었다. 2003년 제 2차 콩고내전이 종식되자 르완다군은 DR콩고에서 철수하였고, 그해 9월까지 대부분의 난민들이 귀환하였다 그러나 르완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투치족이 이끄는 DR콩고 반군 및 DR콩고 동부 난민촌 지역의 후투족

84) 이신화, 이성현, 2014, “유엔 ‘안보역할’의 발전과 한계: 對 아프리카 인도적 개입의 불평등성과 비일관성”,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41집, 6월.

85) UN Security Council, 1999, 상동.

86) Godfrey Mwakikagile, 2013, Civil Wars in Rwanda and Burundi: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Pretoria: New Africa Press).

87) Prunier, 1997, 상동.

반군인 르완다민주해방군(FDLR), 르완다 북서부의 후투족 반군 게릴라 등이 불안한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르완다, 부룬디 및 DR콩고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내전이나 불안정이 다른 국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⁸⁸⁾

요약하면, 벨기에로부터의 독립이후 정권경쟁에서 패배하여 1960년대 우간다로 쫓겨간 투시난민들은 30년 간의 난민생활 속에 난민전사(refugee warriors)가 되어 1991년 집권 후투족과의 내전을 벌이게 되고, 두 종족간의 반목은 1994년 대량학살로 이어졌다. 투치족 및 후투족파들이 학살을 피해 탄자니아로 한꺼번에 급작스레 탈출하자 고릴라 서식지가 파괴되고 사회불안이 심해졌다. 그해 7월 투치족에게 패배한 후투족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자이레, 부룬디, 탄자니아 등으로 대거 도망쳤는데, 부룬디로 도망간 난민들은 그곳의 내전에 연루되어 희생되거나 다시 르완다로 도망쳐 오기도 했고, 자이레에서는 후술하듯이 내전이 발생하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르완다 난민들은 내전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본국이나 인접국의 또 다른 내전의 원인제공자나 참여자가 되기도 하고 국가 간 분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다.

4. 제 1, 2차 콩고내전과 난민문제

아프리카 대륙 중부의 콩고강을 따라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넓은 영토를 가진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콩고)⁸⁹⁾은 콩고왕국 시절인 15세기 후반 유럽과 교역을 하고 아프리카 최초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콩고와 앙골라 전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부터 노동력부족으로 유럽(포르투갈, 네덜란드)으로의 노예수출을 제한하게 되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주변 소국들이 유럽과 교역을 하면서 힘을 키우게 되었고, 포르투갈이 콩고에 직접 개입하게 된 것이다.⁹⁰⁾

1884년 쇠락해진 포르투갈 대신 벨기에가 콩고강 유역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레오폴드 2세 국왕은 콩고를 사유지화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며, 계속되는 벨기에의 폭정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다. 현지인들의 독립투쟁 및 미국과 소련의 압력에 의해 벨기에는 1958년

88) 이신화, 이성현, 2015, 상동.

89) 이웃국인 콩고공화국과 구별하기 위하여 낚사샤 콩고 혹은 민주콩고로 불리기도 한다.

90) Human Rights Watch, 2009, "DR Congo: Chronology," August 21, <https://www.hrw.org/news/2009/08/21/dr-congo-chronology>.

콩고독립 계획을 발표하였고, DR콩고는 1969년 3월 킨샤사 콩고라는 국명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독립 직후부터 초대 대통령인 조제프 카사부부와 초대 총리인 파트리스 루뎀바 간 정치적 갈등이 심했고, 남부에 위치한 광물자원이 많은 카탕가 주가 분리 독립을 위해 모이스 촘베의 주도 하에 내전을 일으켰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카사부부와 소련의 지원을 받는 루뎀바, 그리고 벨기에와 남아공의 지원을 받는 촘베의 복잡한 대결양상을 보이던 내전은 1961년 루뎀바가 처형당하고, 1963년 촘베가 스페인으로 망명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카사부부 대통령은 1965년 귀국한 촘베를 총리에 임명하지만, 그 해 모부투 세세 세코 참모총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쟁탈하였고, 1970년 국명을 자이레 공화국으로 바꾸었다.⁹¹⁾

냉전기 소련과의 패권경쟁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모부투 정권을 지원하였고 모부투는 강력한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계속하여 집권하여 32년을 통치하면서 모부투 대통령은 막대한 사유재산을 축적하였고 정부는 완전히 부패하였으며 경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져갔다. 모부투의 장기독재에 대한 반발은 로랑데지레 카빌라 반군지도자의 주도하에 1996년 11월 제 1차 콩고내전으로 이어진다. 1997년 5월까지 이어진 내전으로 모부투 정권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된 카빌라는 국명을 다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바꾸었다.⁹²⁾

자이레 내전의 촉발원인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웃국 르완다의 내전과 대량학살에서 찾을 수 있다. 1994년 르완다 내전에서 패배한 후투족들이 그 해 7월 자이레 동부지역으로 대거 유입되어 들어와 거대한 난민촌이 형성되고, 이들 중 민병대들이 르완다에 대한 반정부활동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모부투 대통령은 르완다 구정부(후투정부)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르완다 후투족 난민전사들의 (르완다 투시정부에 대한) 게릴라활동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뿐 더러 오히려 주동자를 은닉하거나 군사훈련의 지원하였다. 또한, 모부투 대통령은 1995년 정부군과 르완다 출신 후투민병대 군인들을 동원하여 카빌라가 통치하던 키부남부지역의 르완다 투치족 출신 자이르 국적의 바냐물렝게들을 강제추방하기 시작하였고 이들로 이루어진 반군인 콩고-자이레해방 민주세력연합(AFDL)은 키부 북부지역에서 후투 민병대와 난민을 공격하던 르완다 투치정부군 및 우간다군과 연대를 맺었고 후투족 르완다 구정부군은 자이레 정부군과 함께 이들에 맞서게 되어 1차 콩고내전이 발발했던 것이다. 이 과정

91) 상동.

92) Emizet Francois Kisangani, 2012, *Civil War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960-2010*, (Boulder: Lynne Rienner).

에서 르완다 뿐 아니라 우간다의 군사개입으로 카빌라는 수도 킨샤사에 무혈 입성할 수 있었다.⁹³⁾

하지만 정권을 잡은 카빌라는 바냐물렝게들을 배제하고 AFDL의 지도자인 제임스 카바레베를 추방하였다. 자원이 풍부한 자국을 외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한 카빌라는 1998년 르완다와 우간다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르완다 투치정부는 카빌라가 DR콩고 내 후투반군들을 통제할 능력이 모자랄 뿐 아니라 자원이 풍부한 콩고 동부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철수를 거부하였고, 바냐물렝게들이 카빌라를 공격하기 위해 콩고민주연합(RCD)을 결성하는 것을 적극 도왔다. 우간다 정부는 DR콩고 내 우간다 반군을 공격하고 콩고 남부지역에서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우간다정부에 대항하여 아프리카 중부지역에서 활동하는 테러조직인) LRA 퇴치에만 주력하기 위하여 콩고해방운동(CLM)의 결성을 도왔다. 그 결과 1998년 8월 내전이 재발하였고, 르완다와 우간다는 수만 명의 군인력을 파견하였고 부룬디도 반군을 도왔다. 이에 대응하여 카빌라는 급하게 상호방위조약의 의무가 있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에 지원을 요청하여 그 회원국인 짐바브웨, 나미비아, 앙골라, 잠비아 등이 지원군을 파견하였고, 차드와 리비아도 이에 동참하는 등 소위 ‘아프리카관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였다.’⁹⁴⁾

1999년 7월 유엔 중재 하에 불안정한 휴전협정을 맺었으나 계속 유혈충돌이 이어졌고, 그 와중에 2001년 1월 쿠데타가 발생하여 카빌라가 경호원에게 암살되고 그 아들 조제프 카빌라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으면서 내전은 더욱 악화되었다. 콩고내전은 국가 내 종족 간, 계파 간 정권투쟁에 더하여 다이아몬드와 금, 광물자원 등을 둘러싼 외부세력의 이해관계 및 다국적기업의 관여 등이 복잡하게 얽혔을 뿐 아니라, 르완다와 우간다가 자국 종족 및 난민들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부룬디가 관여하는 등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세계분쟁이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심각한 양상을 띠었다.⁹⁵⁾

2002년 2월 보츠와나의 중재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썬시티에서 휴전협정을 위한 회담이 열렸지만 결렬되고, 8월 남아공과 세네갈의 중재로 대화를 재개하여 12월 프레토리아 평화협정이 만들어지고 유엔이 중재하면서 2003년 7월 불안정하나마 5년 간의 치열한 전쟁은 멈추게 되었지만, 학살과 전염병 및 기아로 540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였다.⁹⁶⁾ 2006

93)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Congolese Health Profile*, March. <https://www.cdc.gov/immigrantrefugeehealth/pdf/congolese-health-profile.pdf>

94) Kisangani, 2012, 상동.

95) 상동.

96) UN News Centre. 2014. “DR Congo Still Needs Humanitarian Aid Despite Advances

년 7월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였지만 당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반발이 심했고, 2016년 11월 예정되었던 선거가 2018년 초로 연기되는 등 여전히 정치적 불안이 심한 상황이다.⁹⁷⁾ DR콩고의 경제도 파탄에 빠져 정부군마저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해 약탈과 뇌물수수가 횡행하고, 반정부세력은 약탈, 강간, 살인 등을 일삼아, 휴전 후에도 난민촌에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새로운 난민이 되어 고향을 등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경의 난민촌이나 DR콩고 내 수용소도 안전하지는 못하여 습격을 받아 여성과 아동이 유괴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⁹⁸⁾

2015년 기준 약 54만 1천 명에 달하는 DR콩고 난민들이 나라 밖을 떠돌고 있는데, 이는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대다수는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 난민들은 후투, 투치, 바나물렌게, 반야르완다 등 종족이 다를 뿐 아니라 내전에서 적대적 관계였거나 학살 및 보복학살 대상이나 행위자로서 상호 반목과 갈등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정세나 내전 재발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역으로 분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⁹⁹⁾

요약하면 DR콩고 분쟁은 이웃국 르완다 후투족 난민들 문제가 촉발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1, 2차 분쟁을 거치면서 콩고난민들이 인접국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 원인이 되면서 인접국의 분쟁개입을 초래하면서 내전이 국가 간 전쟁 양상을 띤 전형적인 사례였다. 콩고에서의 유혈분쟁은 대부분 후투와 투치 간 종족대립과 갈등이 촉발 원인이었지만, 여타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주변국이나 외세열강들의 자원다툼,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난민과 반군들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상호 교차하는 지원 등도 주요 원인이었다.

[표 3: 라이베리아, 수단,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분쟁 및 난민 개요]

사례	분쟁				난민			국제기구
	근본원인	촉발원인	주요	행위자	규모	행위자	영향	유엔지역기

towards Peace,”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016#.WEufMRvhA2w>, January 27.

97) William Clowes, 2016, “DR Congo: Can Anyone Stop Joseph Kabila?” African Arguments, July 21, <http://africanarguments.org/2016/07/21/dr-congo-can-anyone-stop-joseph-kabila/>.

98)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상동.

99) UNHCR, “Congolese Refugees: A Protracted Situation,” Priority Situation Fact Sheet. file:///C:/Users/%EA%B3%B5%EC%9A%A9/Downloads/congolese%20refugees.pdf.

			분쟁이슈		(단위: 명)			구/ 주요국가
르완다	식민지시절부터의종족갈등	1994년 6월 후투 대통령 비행기추락사	종족분쟁 정치투쟁	후투족 투치족	200만 명 (대량학살 당시 및 투치승리 직후) 72,800명 (2015년)	투치족(대량학살시) 후투족과 정부군(투치승리후)	후투강경파에 의한 투치족과 후투은건과에 대한 대량학살	UN, OAU, UNAMIR / 탄자니아, 프랑스
DR콩고 (1차)	장기간의독재정권	르완다 대량학살과후투내전, 후투난민의유입	모부투 대통령독재및 투치족지원	모부투주도정부군, 카빌라반군, 반룬디, 앙우간다	416,435 (1990년)		국내실향민과이웃국가로의난민의대량인권에대한	UNHCR/ 부룬디, 르완다, 우간다
DR콩고 (2차)	독재정권	카빌라 대투치의배제와르완다대우간다군에대한철수요구	자원갈등, 르완다, 우간다, 우간다의철수요구(투치발의반발)	카빌라주도정부군, 반군 RCD, CLM, 양골라, 짐바브웨, 나미비아, 수비아, 잠비아, 우간다, 르완다, 남아공, 미국	541,000명 (2015년)	DR콩고 정부		
라이베리아 (1차)	도정권의독재정치및 종족탄압	반군 NPFL의 기습	정부탄압 부정선거	반군 NPFL, ULIMO, INPEL	700,000명	라이베리아 정부	난민촌 폐쇄, 국내실향민과이웃국가로의난민발생	ECOWAS (ECOMOG), 시에라리온 정부, UNHCR/ 코트디부아르, 기니, 시에라리온, 가나
라이베리아 (2차)	테일러정권의독재정치및 인권유린	반군 LURD 결성 및 공격	정부탄압	반군 LURD, MODEL, 정부군				
수단	이집트의지속적간섭,	북부(정부)와 분리	분리 독립, 쿠데타	북부 아랍 무슬림, 남부 아프	628,800명 (2015년)	수단 정부	이웃 국가로 의 난민	WFP(식량 지급), I G A D,

	이슬람 종파 간 갈등, 인종 갈등	독립을 요구하는 남부 간에 갈등		리카 흑인			동, 막대 한 인명 피해 등	
남수단	북부 수단에서 독립하고 자 하는 남부 수단과의 갈등, 국경 문제, 석유 갈등	당시 대통령에 대한 부대통령 의 쿠데타 실패	쿠데타, 인종청소 (조짐이 보이고 있음)	수단 정부 및 남부 수단, 부족 간 갈등	778,700명 (2015)	키르 대통령 이끄는 정부군	주변국의 분쟁 촉진(다르 푸르 등), 인권침해 및 인도적 범죄, 르완다와 같은 인종청소 발생 가능성 등	U N , UNHCR, EU/ 나 이 지 리 아, 이집 트, 리비 야, 이란, 미국 등

V. 결론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분쟁의 그 숫자상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해결되기 힘든 고착화되거나 복잡하게 얽힌 무력분쟁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오랫동안 분쟁문제가 가장 골칫거리인 아프리카는 식민유산, 냉전의 산물, 독재체제 하의 차별과 반란, 자원을 둘러싼 국내의 이해집단들의 갈등, 내전의 국제화 등 매우 복잡한 분쟁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어렵사리 평화협정이 맺어져 분쟁이 종식된다고 하여도, 전후 조성된 평화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고, 재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분쟁의 국제화가 어떤 경우 분쟁해결을 가져왔고, 어떤 경우 분쟁악화를 초래하였는가에 대한 복잡한 원인과 역학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프리카 분쟁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서구열강들이 종족이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힘의 역학에 의해 임의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를 만들고, 특정 종족을 내세워 통치한, 소위 식민지적 유산이다. 물론 그 전부터 역사적으로 지역 내 종족 간 분란이나 특정 지배층의 착취가 있었던 곳도 많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거나 적극 활용하여 서구 제국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이고,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반목과 갈등이 깊어진 것이다. 독립 후에도 이러한 역사적 갈등에 더해 불안정한 정치체제 속에

서 반란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을 뿐 더러 종종 내전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정치는 더욱 불안해지고 경제는 피폐해지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더욱이 냉전기에는 미-소 패권경쟁으로 인해 아프리카 분쟁은 강대국의 대리전 양상까지 띠게 되면서 더욱 혼전을 거듭하였고, 한 국가의 내전은 인접국의 혈족그룹들의 개입을 가져와 확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정부와 반군 등 분쟁당사자들 간에 권력공유(power sharing)를 합의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손 치더라도 전후 조성된 평화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상호불신과 인식적 위협, 협상당사자 내부 분열이나 이탈, 시간경과나 상황변경에 따른 협약이행에 대한 의욕이나 책임의식 저하 등으로 인해 쉽게 파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구축이나 국가재건을 위한 제도 수립, 경제개혁, 민주적 선거실시를 위한 노력과정을 포함한 과도기에 분쟁재발의 확률이 크다.

분쟁의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결과는 난민발생이다. 일반적으로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피해자에 가까우나, 난민이 유입된 국가, 즉 난민수용국가에게 있어서 난민은 수용국가에 혼돈을 야기할 수도 있는 성가신 존재이기도 하다. 즉 난민들은 결코 무력한 피해자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한 편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용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차별을 받고, 언젠가는 자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의무(때로는 희망이고 때로는 두려움일 수 있는)를 지니고 생활하게 된다. 난민수용국은 송환 혹은 귀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미흡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열악한 환경과 차별이 존재하는 난민촌에서는 설사 약탈, 강간, 학살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난민들은 새로운 갈등을 낳는 가능성을 갖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여전히 상대적인 약자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무고한 피해자로서의 난민들과 더불어 호전적인 난민전사들이 인접국으로 유입될 경우 난민촌을 발판으로 출신국에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유입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들 난민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경우, 출신국 정부가 유입국 반군을 도와 보복공격을 할 수 있어 국가 간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순수한 민간인만으로 구성된 난민들일지라도 한꺼번에 많은 수가 특정 지역으로 밀려들어올 경우, 유입국 내에서 혹은 출신국과 유입국 사이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난민문제를 단순한 인도적 이슈를 넘어 정치안보문제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야기될 부정적 파장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국가에 난민이 유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의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르완다에서의 교훈을 살릴 필요성이 있다. 르완다에서는 난민조약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못하여 갈등이 야기 되었다고 지적이 된다. 과거에 이러한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리카의 많은 난민 캠프의 치안 상태는 매우 좋지 않으며, 반군 세력들이 주로 난민 캠프를 통해서 그들의 군사력을 확대되고 있다는 사례들을 각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남수단과 다르푸르, 부룬디 등에서는 난민 캠프의 확실한 안전 보장이 새로운 갈등을 막는 한 몫을 할 것이다. 또한 반군 세력이 침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난민 캠프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으며, 이 때문에 다시 반군 세력에 동참을 하는 난민들이 생기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해당 국가는 난민 캠프의 생활수준을 확보,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취약그룹을 보호하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유럽 사태에서 보듯이, 난민이동으로 인한 안보위협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인도적 위기의 난민을 자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정치적으로 이들을 거부하거나 타국으로 떠넘기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문제를 안보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이들을 배척하는 것으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을 뿐 더러,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더 큰 국가적, 지역적 혼란이나 안보불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난민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난민을 배출한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분쟁, 박해 등)를 해결하는 정치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유입국 내 난민이나 난민지위를 얻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유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 및 국제법적 보호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송영훈. 2014.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국제정치논총』, 제 54권 1호, 3월.
- 유엔난민기구(UNHCR). 2015. “유럽 난민위기 한눈에 들여보기,” *With You*, 통권 19호, 겨울호.
- 유엔난민기구(UNHCR). 2016. “난민,” <http://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1002.html>.
- 외교부 국제기구국 유엔과, “평화구축위원회(PBC) 개요”, <http://www.mofa.go.kr>
- 이성현. 2015. 『효과적 국가제도와 전후(戰後) 평화구축: 르완다와 수단 다르푸르 내전 분석』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p.37-53.
- 이신화. 2002. “평화의 새로운 위협: 환경-난민-분쟁의 역학,” 하영선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도서출판 풀빛), 12월.
- 이신화. 2012.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 이신화. 2014. “유엔 ‘안보역할’의 발전과 한계: 對 아프리카 인도적 개입의 불평등성과 비밀관성,”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41집, 6월.
- 이신화. 2016.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한국과 국제정치』, 제 32권 제 1호, 봄.
- 이신화, 이성현. 2015. “내전의 재발방지와 유엔의 안보역할 -아프리카 전후(戰後) 평화구축활동의 성과격차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Vol. 23, No. 3.
- 장용규. 2007. “후투와 투치의 인종차별과 갈등의 역사적 전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26집.
- 정은숙. 2008. “제2세대 유엔 PKO: 특징, 현황, 정치”, 『세종정책연구』 4-1.
- 조용만. 2010. “유엔 PKO활동 분석과 한국 PKO의 전략적 실용화 방향,” 『韓國國際政治學會』 제 50집 1호, 3월.
- 최동주. 2003. “아프리카 난민문제에 대한 소고,”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18집.
- 최동주. 2004. “나일 유역 분쟁과 수단 내전: 수자원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19집.
- 하용국. 2016. “난민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발전 방향,”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 법무부 난민과장 기조발표, 6월.
- 한국국방연구원,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3759&cid=42147&categoryId=42147>.
- Adekeye Adebajo, 2002, *Liberia's Civil War: Nigeria, ECOMOG, and Regional Security in West Africa: Building Peace in West Africa: Liberia, Sierra Leone, and Guinea-Bissau* (New York: Lynne Rienner).
- Ankut, Priscila Yachat, 2015. “The Role of Constitution-Building Processes in Democratization: Case Study Rwand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 Barltrop, Richard, 2011, *Darfu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w York: I.B. Tauris & Co.Ltd).

- Blanchard, Lauren Ploch. 2016. "Conflict in South Sudan and the Challeng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ptember 22.
- Boutros-Ghali, Boutros, 1992. *An Agenda for Peace* (New York: United Nations).
- Caldor, Mary, 2013. *New & Old Wars*. 2006. 2nd edi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ll, Charles T. 2012. *Why Peace Fails: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Civil War Recurren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Chetail, Vincent(ed), 2009. *Post-conflict Peacebuilding: A Lexic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lowes, William, 2016, "DR Congo: Can Anyone Stop Joseph Kabila?" African Arguments, July 21, <http://africanarguments.org/2016/07/21/dr-congo-can-anyone-stop-joseph-kabila/>.
- Collier, Paul, Anke Hoeffler and Mans Soderbom, 2008. "Post-Conflict Risk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5, No. 4, Special Issue on the Aftermath of Civil War.
- Collier, Paul, Lance Elliot, Håvard Hegre, Anke Hoeffler, Marta Reynal-Quero and Nicholas Sambanis, 2003. *Breaking the Conflict Trap: Civil War and Development Policy* (Oxford and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and World Bank).
- Cockett, Richard, 2010. *Sudan: Darfur and the Failure of an African Stat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Committee on Conscience, 2005. "Alert: Genocide today in the Darfur Region of Sudan,"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February, <<http://www.committeeonconscience.org>>.
- Dallaire, Roméo, 2003. *Shake Hands with the Devil: The Failure of Humanity in Rwanda* (Toronto: Random House Canada).
- Dörrie, Peter. 2016. "The Wars Ravaging Africa in 2016,"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22.
- Ducasse-Rogier, Marianne, 2009. "Resolving Intractable Conflicts in Africa: A Case Study of Sierra Leone", *Working Paper Series*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ingendael).
- el-Battahani, Atta, 2006. "A Complex Web: Politics Conflict in Sudan," *Peace by Piece: Addressing Sudan's Conflicts*, Accord 18, <http://www.c-r.org/accord/sudan/complex-web-politics-and-conflict-sudan>.
- Ellis, Stephen, 2006, *The Mask of Anarchy Updated Edition: The Destruction of Liberia an the Religious Dimension of an African Civil War*, (London: Hurst & Co.Ltd, September).
- European Commission (EC). 2015. "Refugee Crisis: European Commission Takes Decisive Action – Questions and Answers," Press Release Database, 9월 9일,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5597_en.htm;

- Fagen, Patricia, 2011. Uprooted and Unrestored: A Comparative Review of Durable Solutions for People Displaced by Conflict in Colombia and Liberia, UNHCR, PDES, August, <http://www.unhcr.org/4e576a739.html>.
- Flahaux, Marie-Laurence, 2016.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 Migration History Marked by Crises and Restrictions", Migration Policy Institute, April 20.
- Freedom House, 2015. *Freedom In the World 2015: Discarding Democracy: A Return to the Iron Fist* (Washington, DC: Freedom House).
- Frontex. 2015. *Annual Risk Analysis 2015* (Warsaw: European Agency for the Management of Operation Cooperation at the External Border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Oslo: Sage Publication).
- Gupta, Sanjeev Gupta, 2002. Benedict Clements, Rina Bhattacharya, and Shamit Chakravarti, "The Elusive Peace Dividend" *Finance & Develop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 Gurr, Ted R. 1993, "Why Minorities Rebel: A Global Analysis of Communal Mobilization and Conflict Since 1945",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4, No. 2, April.
- Hanson, Stephanie. 2007. "Sudan, Chad, and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uary 2
- Higashi, Daisaku, 2015. *Challenges of Constructing Legitimacy in Peacebuilding: Afghanistan, Iraq, Sierra Leone, and East Tim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olt, P.M. and M.M. Daly, 2011, *A History of the Sudan: From the Coming of Islam to the Present Day*, 6th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uman Rights Watch, 2009, "DR Congo: Chronology," August 21, <https://www.hrw.org/news/2009/08/21/dr-congo-chronology>.
- Human Right Watch. 2016. "UN: Stop Sexual Abuse by Peacekeepers," March 4. <https://www.hrw.org/news/2016/03/04/un-stop-sexual-abuse-peacekeepers>.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9. "Sudan: Justice, Peace and the ICC", *Africa Report* No. 152, July.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4, "Sudan's Spreading Conflicts(III): The Limits of Darfur's Peace Process", *Africa Report* No. 211, January.
-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IDMC), 2015, "Liberia: Country Information 2015," <http://www.internal-displacement.org/database/country/?iso3=LBR>.
-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 (IDMC), 2015. *Global Estimates 2015: People Displaced by Disasters*, (Geneva: Norwegian Refugee Council and IDMC)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Gallop World Poll. 2013. "Four Pathways of Migration 2009–2011,"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World Migration Report 2013: Migrant Well-Being and Development* (Geneva: IOM).
- IRIN (The inside story on emergencies), 2012, "Darfur's Forgotten Refugees," August 10, <http://www.irinnews.org/feature/2012/08/10/darfur%E2%80%99s-forgotten-refugees>.
- ISE Center, 2010. "Nobody Owes Us Anything": Self-Destruction to Self-Reliance in Rwanda" (Institute for State Effectiveness).
- Jesuit Refugee Service, 2006, Six Months After the Official Closure of the IDP Camps. Assessment of the IDP Return Process in Liberia."
- Johnson, Douglas H. 2004, *The Root Causes of Sudan's Civil War* (African Issues), 2nd e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Kisangani, Emizet Francois, 2012, *Civil War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960–2010*, (Boulder: Lynne Rienner).
- Lee, Shin-wa. 1997, "Not a One-time Event: Environmental Change, Ethnic Rivalry, and Violent Conflict in the Third World," *The Journal of Environment Development*, Vol 6, No. 4. December.
- Lee, Shin-wa. 2001. "Emerg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Refugees, and Conflict."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8. No.1. June.
- Lee, Shin-wa, 2014. "Does Helmet Color Matter? Discrepancy in Korea'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3.
- Llewellyn, Jennifer J. and Daniel Philpott(ed), 2014. *Restorative Justice,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und, Michael, 2004. "Curve of Conflict,"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USIP), http://online.usip.org/analysis/2_6_2.php.
- Mitchell, Andrew, 2014. "Rwanda's 20 Year Miracle: 'We had Nowhere to Go but Up,'" *ThinkAfrica Press*, April 7, <http://thinkafricapress.com/>.
- Monteiro, André Costa, 2009. "Peacebuilding and Security Sector Reform in Guinea-Bissau", Conference Paper presented at *NAD 2009: Africa-In Search of Alternatives* (African Network Norway and The Nordic Africa Institute, October).
- Mwakikagile, Godfrey, 2013, *Civil Wars in Rwanda and Burundi: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Pretoria: New Africa Press).
- Paris, Roland, 2004. *At War's End: Building Peace After Civil Confli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is, Roland and Timothy D. Sisk(ed), 2009. *The Dilemmas of Statebuilding: Confronting the Contradictions of Postwar Peace Operations* (New York: Routledge).
- Peace Direct. 2009.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onflict Profile,"

- Insight on Conflict*, August, <https://www.insightonconflict.org/conflicts/dr-congo/conflict-profile/>.
- Peace Direct. 2010. "Liberia: Conflict Profile," *Insight on Conflict*, January, <https://www.insightonconflict.org/conflicts/liberia/conflict-profile/>.
- Prunier, Gerard. 1997, *The Rwanda Crisis: History of a Genocid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eves, Eric, 2014, "Darfuri Refugees in Eastern Chad: Among the World's Most Forgotten People," Sudan: Research, Analysis and Advocacy, July 18. <http://sudanreeves.org/2014/07/18/darfuri-refugees-in-eastern-chad-among-the-most-forgotten-people-8-july-2014/>.
- Reliefweb, 2016, "Out of Sight, Out of Mind: Why South Sudanese Refugees are not Joining Flows to Europe," June 14, <http://reliefweb.int/report/south-sudan/out-sight-out-mind-why-south-sudanese-refugees-are-not-joining-flows-europe>.
- Sanders, Craig, 1997. "Environment: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and the Trees..and the Gorillas?" *Refugee Magazine*, Issue 110. December 1.
- Shah, Anup. 2010.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Global Issues*, August 21,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87/the-democratic-republic-of-congo>.
- Sikainga, Ahmad, 2009. "The World's Worst Humanitarian Crisis': Understanding the Darfur Conflict," *Origins* Vol. 2, Issue 5, February.
- Silva-Leander, Sebastian. 2008. "On the Danger and Necessity of Democratization: trade-offs between short-term stability and long-term peace in post-genocide Rwanda", *Third World Quarterly* Vol. 29, No. 8.
- Smyer, William R. 1985, "Refugees: A never Ending Story," *Foreign Affairs*, Fall.
- Themnér, Lotta and Peter Wallensteen, 2014. "Armed conflict, 1946-2013", *Journal of Peace Research* 51(4).
- Themnér Pettersson and Peter Wallensteen, 2015. "Armed Conflict, 1946-2014",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2, No. 4, July.
- Totten, Samuel and Eric Markusen, eds. 2006. *Genocide in Darfur: Investigating the Atrocities in the Sudan*. (New York: Routledge).
- United Nations, 2000. "Identical letters dated 21 August 2000 from the Secretary-General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A/55/305-S/2000/809*, August.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Sustaining Human Progress: Reducing Vulnerabilities and Building Resilience* (New York: UNDP).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Approved resources for peacekeeping operations for the period from 1 July 2014 to 30 July 2015",

A/C.5/69/17, January 14.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04. "Darfur: Today's Worst Humanitarian Crisis", *Refugees* Vol. 3, No. 136.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5. "Figures at a Glance," *Global Trends 2015 Statistical Yearbooks* (Geneva: UNHCR).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5.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5*, <http://www.unhcr.org/statistics/unhcrstats/576408cd7/unhcr-global-trends-2015.html>.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5. "UNHCR: Total Number of Syrian Refugees Exceeds Four Million for First Time," Press Release, July 9, <http://www.unhcr.org/news/press/2015/7/559d67d46/unhcr-total-number-syrian-refugees-exceeds-four-million-first-time.html>.
- UNHCR, "Congolese Refugees: A Protracted Situation," Priority Situation Fact Sheet. <file:///C:/Users/%EA%B3%B5%EC%9A%A9/Downloads/congolese%20refugees.pdf>.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2016. "Figures at a Glance," <http://www.unhcr.org/afr/72-figures-at-a-glance.html>.
- UNHCR, 2016, "The Number of South Sudanese Refugees Reaches 1 Million Mark," September 16, <http://www.unhcr.org/en-us/news/briefing/2016/9/57dbb5124/number-south-sudanese-refugees-reaches-1-million-mark.html?query=sudan%20refugees>.
- UN News Centre, 2006, "Possibility of Genocide in South Sudan is 'all too real,' Ban Warns in Opinion Piece," December 16,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5822#.WFeRNRvhA2w>.
- United Nations News Centre. 2014. "DR Congo Still Needs Humanitarian Aid Despite Advances towards Peace,"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7016#.WEufMRvhA2w>. January 27.
-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2015. "Sudan: Humanitarian Snapshot."
-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Commission (UNPBC), 2015.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the 2015 Peacebuilding Review*, June 30.
-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Commission, 2016. "Countries Currently on the PBC Agenda," August 31, <http://www.un.org/en/peacebuilding/>.
-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2016. "Where We Fund," August 31. <http://www.unpbf.org/countries/>.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016. "Peacekeeping Fact Sheet," August 31, <http://www.un.org/en/peacekeeping/resources/statistics/factsheet.shtml>.
- United Nations Regional Information Center for Western Europe (UNRIC).

2016. “New Report: Developing Countries Host 80% of Refugees,” December 8, <http://www.unric.org/en/world-refugee-day/26978-new-report-developing-countries-host-80-of-refugees->.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999, “Report of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1994 Genocide in Rwanda”, *S/1999/1257*, December 15.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4. “Speci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eview of the African Union-United Nations Hybrid Operation in Darfur”, *S/2014/138*, February 25.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999, “UN 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1994” Genocide in Rwanda, December, UN Security Council (S/1999/1257).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Protracted Refugee Situations,”<http://www.state.gov/j/prm/policyissues/issues/protracted/>.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Congolese Health Profile,” <https://www.cdc.gov/immigrantrefugeehealth/pdf/congolese-health-profile.pdf>.
- World Bank, 2009. “Rwanda: From Post-Conflict Reconstruction to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IDA) Report*, August.
- World Food Programme, “Sudan,” <https://www.wfp.org/countries/sudan/overview>.
- Wright, Neill, et al. 2007. Real-time evaluation of UNHCRs IDP operation in Liberia, UNHCR, PDES 2007/02, <http://www.unhcr.org/46a4ae082.html>
- Zolberg, Aristide, Astri Suhrke. Sergio Aguayo, 1989, *Escape from Viol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